2021 KOREAN WEALTH REPORT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 트렌드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그룹

손님 하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손님의 자리를
비워둡니다

2021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Best Private Bank in Korea)

2021 글로벌 최우수 혁신 PB은행
(Most Innovative Private Bank in the World)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은행

Korean Wealth Report는
하나은행 PB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손님들께 진행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부자들의 자산관리 방식, 라이프스타일 등을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중부유층까지 조사 대상을 넓혀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집단 간 비교에 중점을 두었고,
보다 광범위한 부유층 집단에 대한 분석을 담았습니다.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부자 약 700여 명, 대중부유층 약 1,400여 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이들을 파악하기에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중부유층에 대한 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 시계열 분석은 '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보고서가 국내 부자와 대중부유층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에서의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정의

- 부자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 (가구 기준)
- 대중부유층 | 금융자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보유 (가구 기준)

조사 대상과 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 (무기명)
- 조사기간 | 2020년 12월
- 조사 대상 및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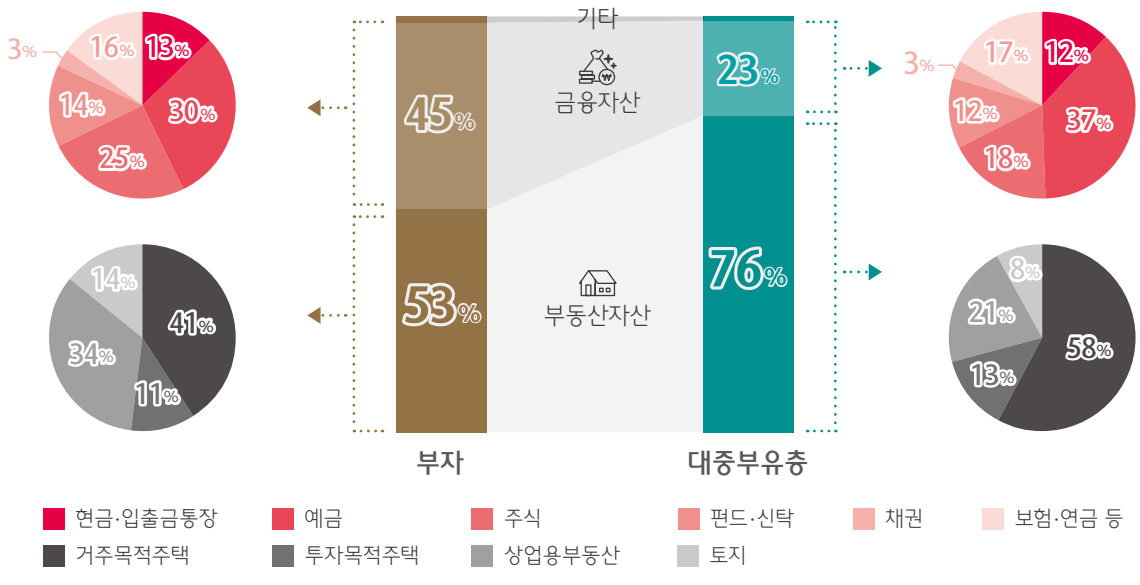
  부자 | 국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 700명
  대중부유층 | 국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금융자산 1억원 이상 보유자 1,400명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

2020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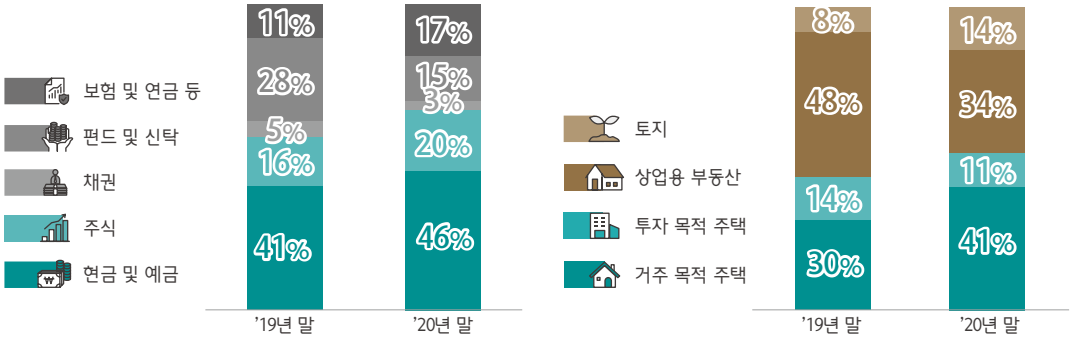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 포트폴리오 (2020년 말)

부자들은 총자산의 53%, 대중부유층은 76%가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 다양한 부동산 및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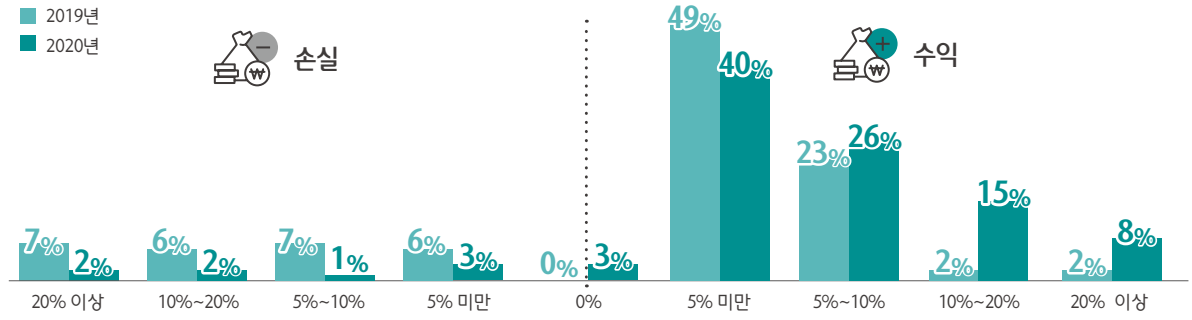
부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부자들은 작년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 현금 및 예금, 주식, 보험 및 연금 비중을 확대
부동산 자산의 경우, 거주 목적 주택 비중이 확대



부자들의 금융자산 투자수익률 (2020년)

2020년 부자들은 재작년('19년)보다, 기대 이상의 '높은 수익률' 달성, 주식 덕분



2021년 계획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경기 전망

절반 이상은 '앞으로 더 안좋아질 것'

실물 경기

긍정 **22%**

부정 **61%**

- 좋아질 것이다 21.3%
- 아주 좋아질 것이다 0.6%
- 안 좋아질 것이다 49.5%
-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 11.5%

부동산 경기

긍정 **17%**

부정 **52%**

- 좋아질 것이다 16.2%
- 아주 좋아질 것이다 0.8%
- 안 좋아질 것이다 42.8%
-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 9.5%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 리밸런싱 계획

자산 리밸런싱은 관망세 우세,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

	부자	대중부유층	부동산 고액자산가 (부동산자산 50억원 이상 보유)
대체로 현재의 자산구성을 유지할 계획	51%	56%	43%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릴 것	18%	19%	29%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비중을 늘릴 것	8%	11%	6%
자산 구성은 유지하겠지만, 투자 내용은 바꿀 것	23%	14%	22%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올해 투자 계획 금융상품 Top5

주식 선호 현상 지속, 정기예금과 단기금융상품도 여전히 선호

부자

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 1년 미만, MMDA, MMF, CMA등)	21%
은행 정기예금 (만기 1년 이상)	19%
지수연계증권/신탁/펀드 (ELS, ELT, ELF)	17%
주식 직접투자 (ETF 제외)	15%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달러 등 외화 자산	8%

대중부유층

은행 정기예금 (만기 1년 이상)	24%
주식 직접투자 (ETF 제외)	22%
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 1년미만, MMDA, MMF, CMA등)	14%
지수연계증권/신탁/펀드 (ELS, ELT, ELF)	10%
주식형 펀드 (공모형)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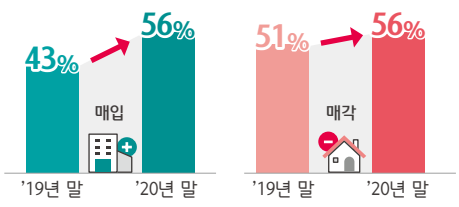
주: 1순위 응답 기준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부동산과 주식 투자 계획 및 전망 (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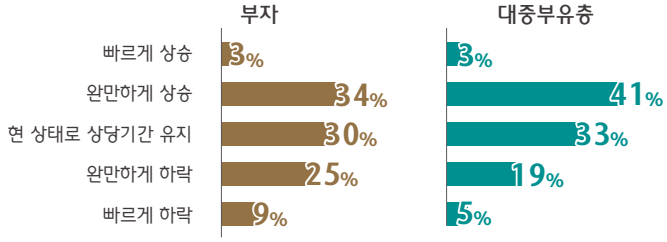
부동산은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주식 전망은 '긍정적'

부자들의 부동산 매입·매각 계획 변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



2021년 주가 전망



CONTENTS

01 부자와 대중부유층
자산과 소득 현황 05

02 부자와 대중부유층
경기 전망과 계획 11

03 부자와 대중부유층
자산관리 ① 금융자산 17
② 부동산 27

04 부자와 대중부유층
대출 33

05 부자와 대중부유층
상속과 증여 37

06 부자와 대중부유층
노후 준비 43

07 부자와 대중부유층
디지털 자산관리와 투자 정보 49

01

부자와 대중부유층

자산과 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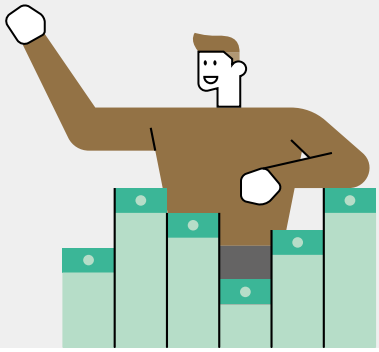
부자되는 습관, 부자의 공식, 부자의 소비, 부자의 인맥...
부자와 관련된 키워드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본격적으로 부자들의 자산관리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부자들의 자산과 소득현황을 먼저 살펴보자.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 부자와 함께 다루게 될 대중부유층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총 소득은 어느 정도인지,
소득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자

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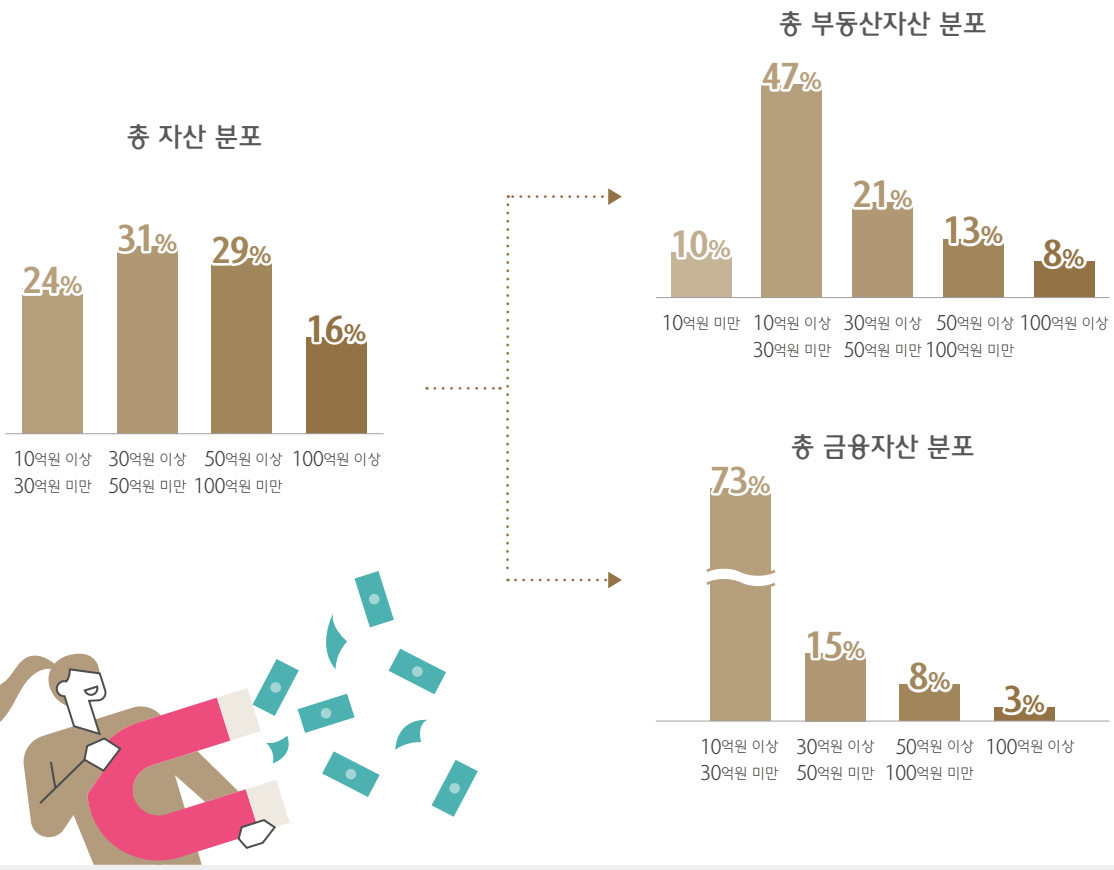
부자의 기준

부자의 기준을 '자산 규모'로 삼을 경우,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리고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할까?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규모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를 부자로 정의하였는데 반해
부자들의 대부분은 "총자산(부동산 포함) 기준으로 약 100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부자"라고 응답했다.[1]
보유 자산이 많을수록 부자의 기준이 높았는데,
본인이 생각한 부자의 기준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한,
즉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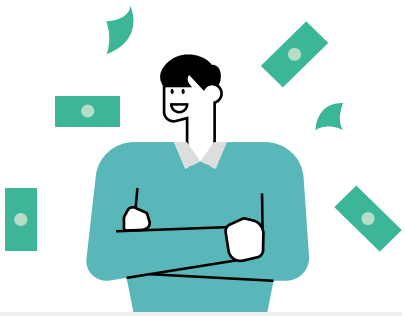
"총 자산은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31%,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구간에 29% 분포,
부동산 자산 및 금융자산 모두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



1: 중앙값 기준
주: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대중부유층

자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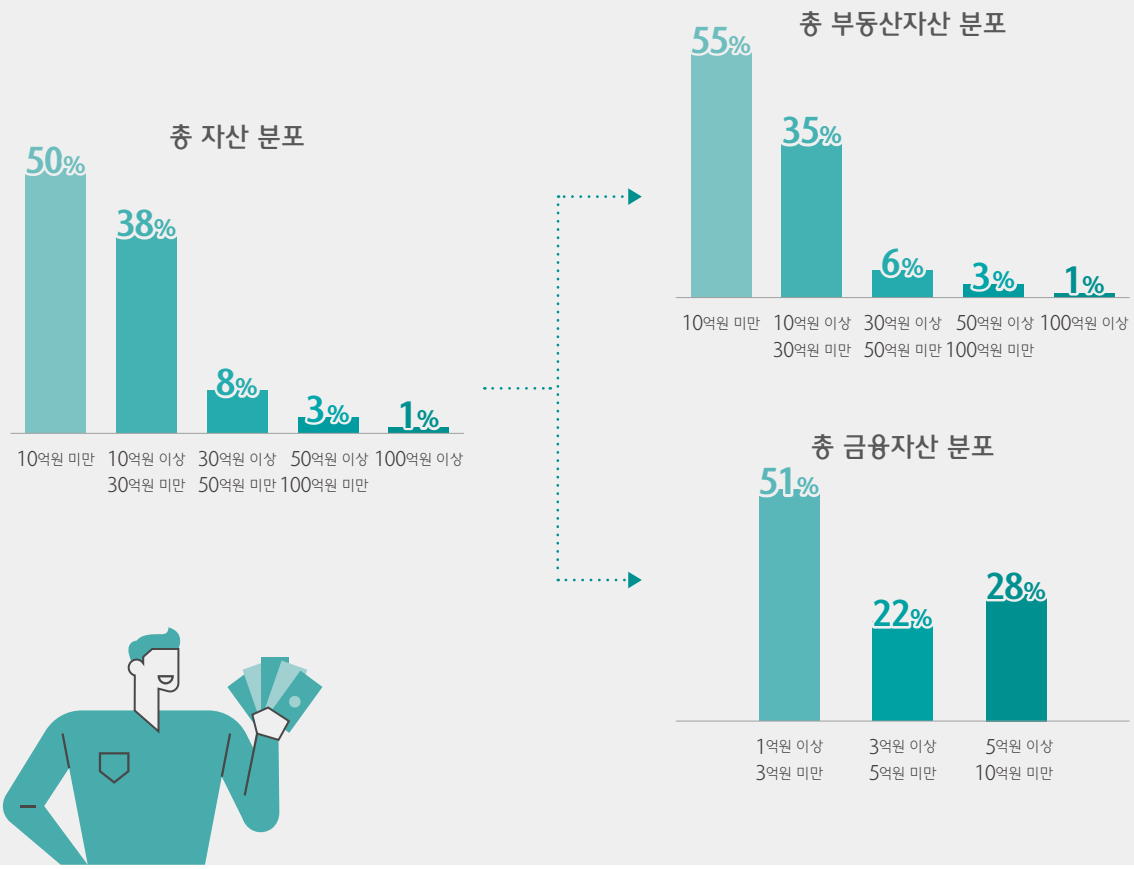
대중부유층이란?

대중부유층은 부자와 중산층의 경계에 있는 준부자(semi-rich) 집단으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중부유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보유 금융자산 또는 연 소득을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그룹을 대중부유층으로 보기도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자산 규모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대중부유층으로 정의하고, 부자(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와 구분하여 사용한다.

자산 현황

"금융자산은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에,
총 자산은 10억원 미만 구간에 절반 가량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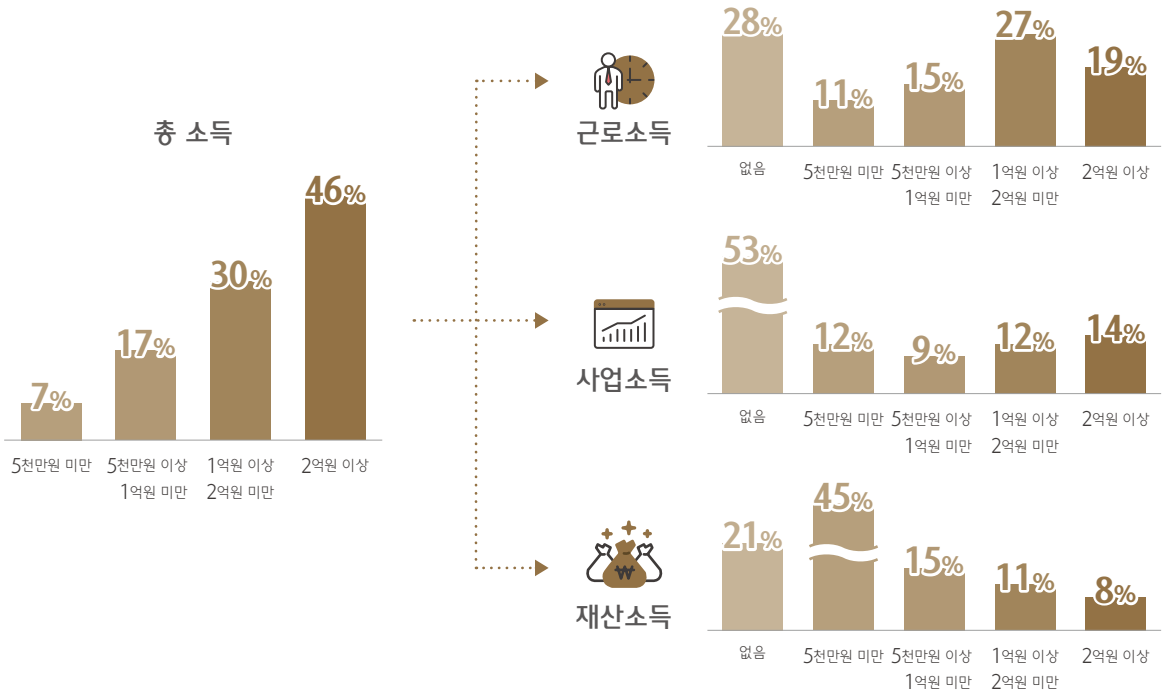
주: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합계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부자

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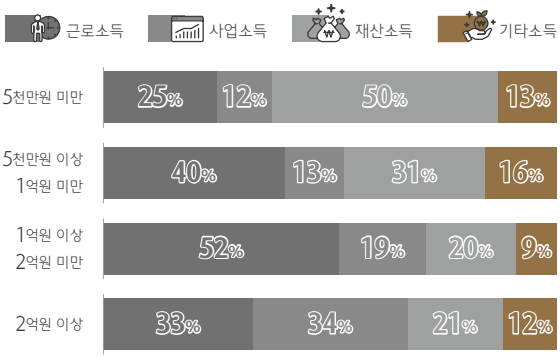
가구소득

"연간 가구 총소득은 2억원 이상이 절반 가량(46%)"



총 소득 구간별 구성비

"총소득 5천만원 미만 구간에서 재산소득 비중이 50%
소득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 비중이 증가하다,
총소득 2억원 이상 구간에서 사업소득 비중이 가장 높아"



총 소득 × 총 자산 구성비

"총소득 2억원 이상 & 총자산 50억원 이상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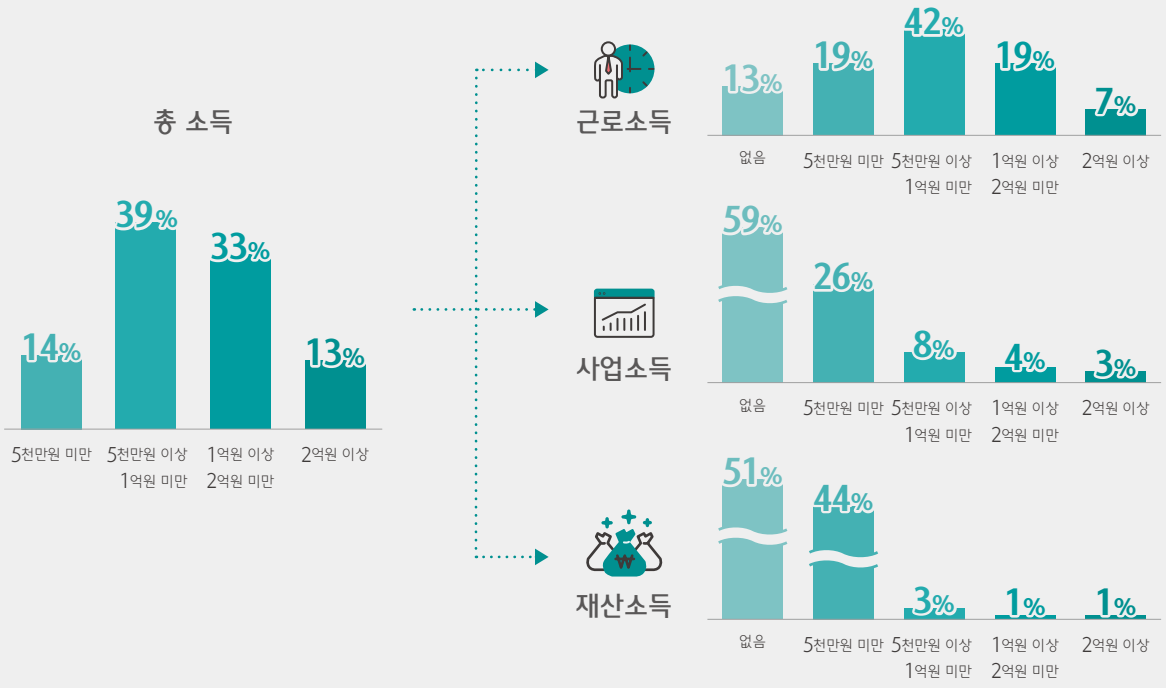
총 소득		총 자산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24%	31%	29%	16%
총 소득	5천만원 미만	7%	4%	2%	1%	0%
총 소득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7%	6%	7%	4%	0%
총 소득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	8%	10%	10%	1%
총 소득	2억원 이상	46%	5%	12%	14%	15%

대중부유층

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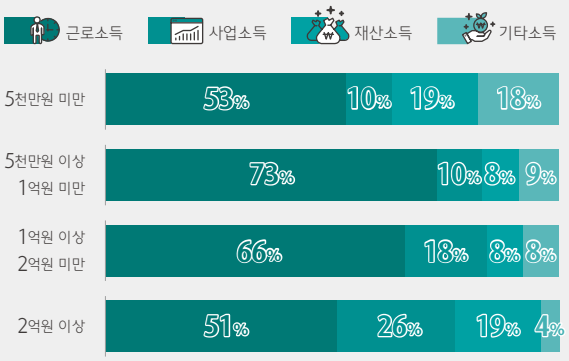
가구소득

"연간 가구 총소득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9%,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구간에 33%가 분포,
근로소득 비중이 가장 높아"



총 소득 구간별 구성비

"모든 구간에서 근로소득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
2억원 이상 구간에서 사업소득(26%)과
재산소득(19%) 비중이 높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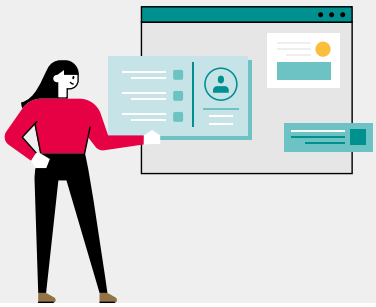
총 소득 × 총 자산 구성비

"총소득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총자산 10억원 미만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

총 소득		총 자산	10억원미만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50%	38%	8%	3%	1%
총 소득	5천만원미만	14%	8%	6%	1%	0%	0%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39%	25%	13%	2%	0%	0%
	1억원이상 2억원이상	33%	13%	15%	4%	1%	0%
	2억원이상	13%	5%	5%	1%	1%	1%

참고

조사대상자 프로파일



부자

대중부유층

연령 분포

거주지 분포

직업

02

부자와 대중부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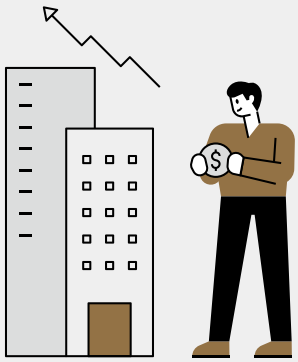
경기 전망과 계획

매년 불확실성을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고 아직도 진행 중인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높은 불확실성이 팽배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치료제와 백신 보급이 가속화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또 한 편에선 경기 침체의 장기화를 걱정한다.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간의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을 준비하고 있을 부자들과 대중부유층.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며, 어떤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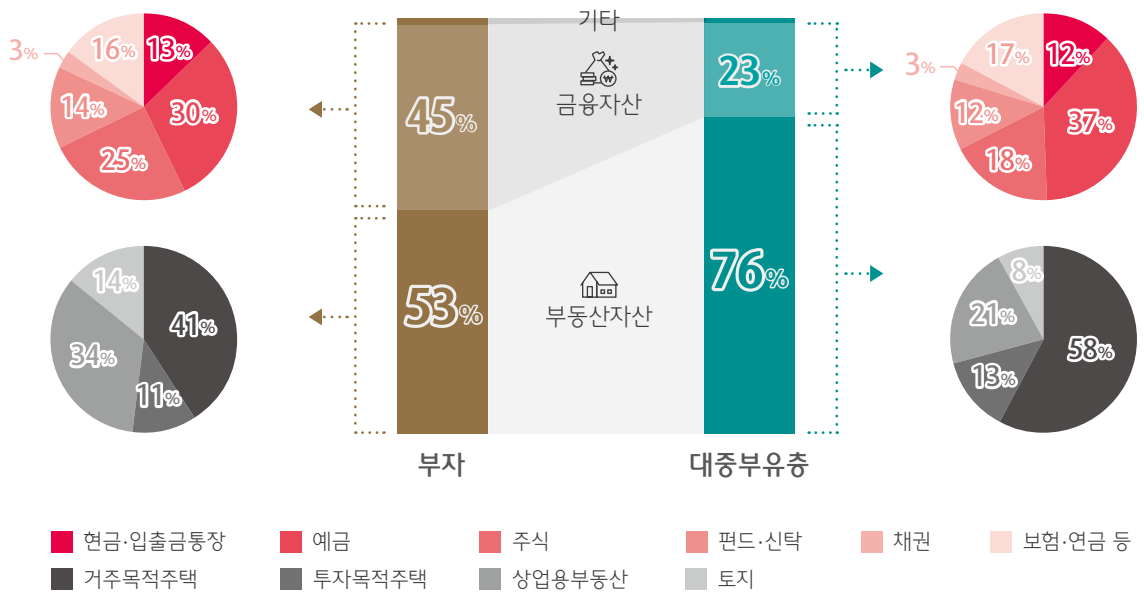
20년 말 현재,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 포트폴리오

부자들의 53%, 대중부유층의 76%는 부동산 자산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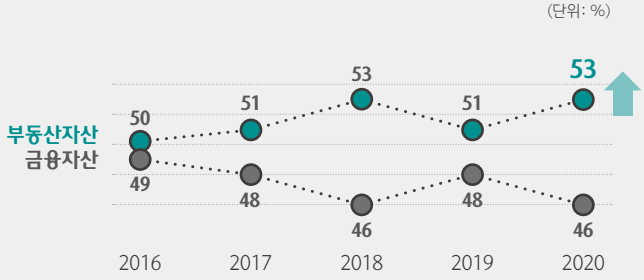
국내 가계자산의 특징 중 하나는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실물자산 비중은 76.4%, 금융자산은 23.6%였다.[1] 평균 가구와 비교해보면, 대중부유층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슷한 수준(76%)이지만, 부자들은 53%로 월등히 낮았다. 이들은 일반 가계에 비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여력이 상대적으로 많고, 실제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자산을 분배하고 있었다.

지난해, 주거용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모두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특히 주택 매매가격은 전국적으로 8.3% 상승했다.[2] 이와 같은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영향으로 작년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2%p 상승했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 구성 현황 ('20년 12월 기준)



부자들의 과거 5년간 자산구성 변화



"작년 부동산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부자들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2%p증가**"

1: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12
2: KB국민은행

경기 전망

절반 이상은 '앞으로 더 안좋아질 것'

작년,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으로 국내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 급감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정책 대응, 반도체 경기 회복, 백신 접종 개시 등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보다 경기 회복세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견해는 어떠할까? 부자와 대중부유층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실물 경기와 부동산 경기 모두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는데, 실물 경기의 경우 응답자들의 61%가, 부동산 경기의 경우 응답자의 52%가 더 나빠질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고액자산가일수록 향후 경기 전망에 더 부정적인 편이었다.

경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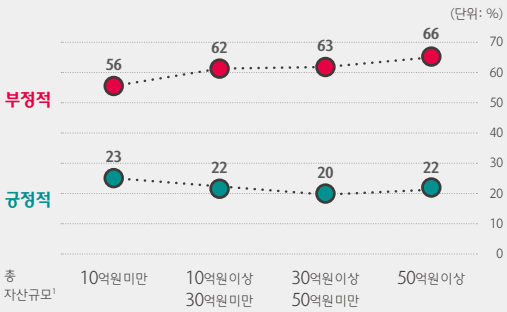
실물 경기

긍정 **22%**

- 좋아질 것이다 **21.3%**
- 아주 좋아질 것이다 **0.6%**

부정 **61%**

- 안 좋아질 것이다 **49.5%**
-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 **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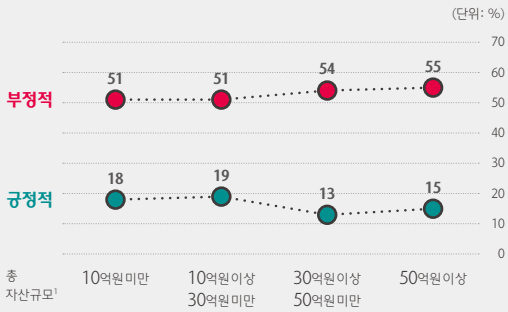
부동산 경기

긍정 **17%**

- 좋아질 것이다 **16.2%**
- 아주 좋아질 것이다 **0.8%**

부정 **52%**

- 안 좋아질 것이다 **42.8%**
- 매우 안 좋아질 것이다 **9.5%**



"고액자산가일수록 경기전망에 더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경향"

1: 총 자산(금융+부동산자산) 기준

자산구성, 어떻게 바꿀 계획인가?

자산 리밸런싱은 관망세 우세,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에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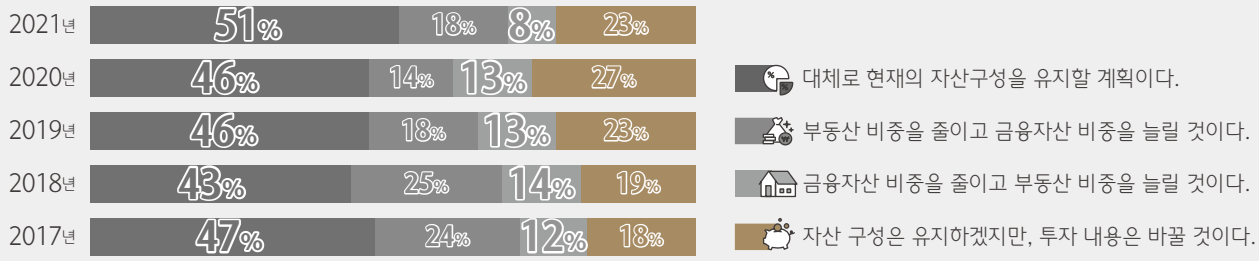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절반 이상은 현재의 자산 구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물, 부동산 경기 모두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자산 리밸런싱보다는 '관망하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관망세가 우세한 가운데 지난 해 설문에서는 '부동산 비중을 높이겠다'와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 비율이 비슷했으나, 올해는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겠다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특히 부동산 자산을 5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고액자산가의 경우, 세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부동산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금리 상승 전망,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 시각 등으로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올해 부동산보다는 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 구성 계획 변화

	부자	대중부유층	부동산 고액자산가 (보유 부동산자산 50억원 이상)
대체로 현재의 자산구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51%	56%	43%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릴 것이다.	18%	19%	29%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비중을 늘릴 것이다.	8%	11%	6%
자산 구성은 유지하겠지만, 투자 내용은 바꿀 것이다.	23%	14%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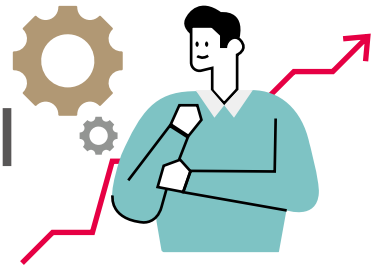
"부자들은 지난 5개년 조사 중
'현재의 자산 구성을 유지할 계획' 응답 비율이 가장 높고
'부동산 비중을 증가 계획'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아"


2021년 51% 18% 8% 23%
2020년 46% 14% 13% 27%
2019년 46% 18% 13% 23%
2018년 43% 25% 14% 19%
2017년 47% 24% 12% 18%
대체로 현재의 자산구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 비중을 늘릴 것이다.
금융자산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비중을 늘릴 것이다.
자산 구성은 유지하겠지만, 투자 내용은 바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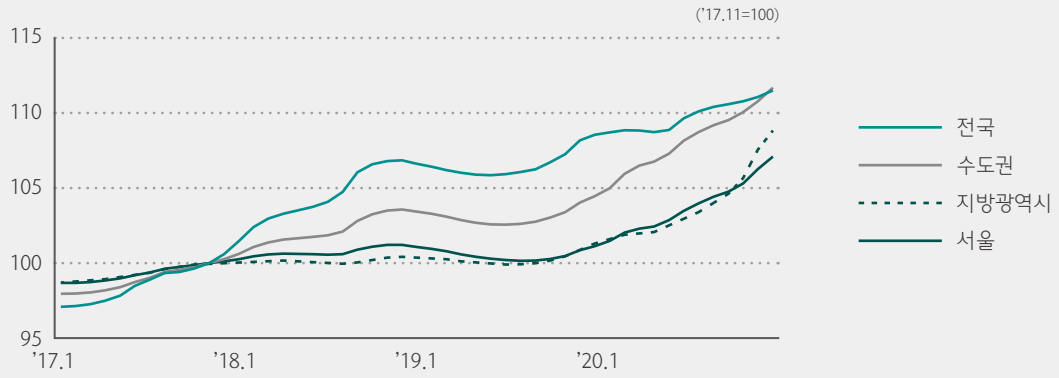
주: 조사 시점은 표기 연도 전년도 말

참고

2020년 주택 매매 가격 및 주가 추이



주택 매매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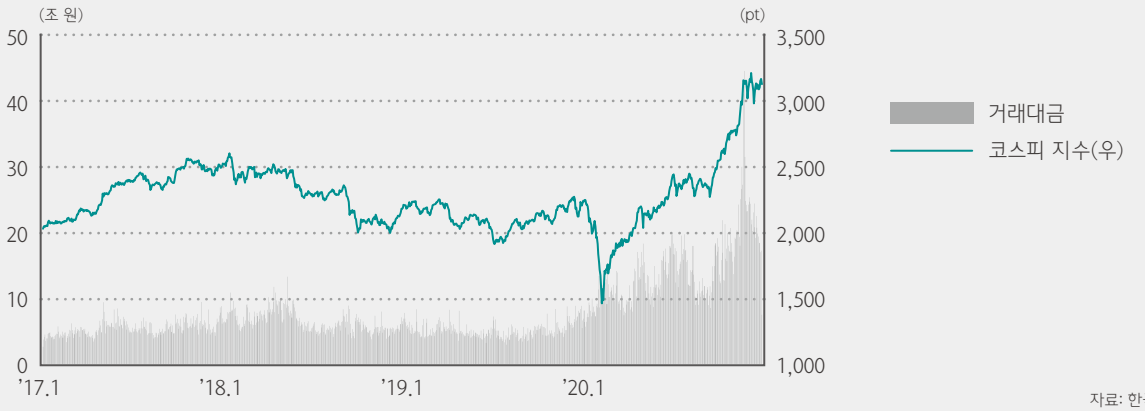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0~21년 발표 주요 부동산 정책

	주요 내용	
2020년 6.17 대책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구 확대 적용 · 규제 지역 내 규제 내용 강화 · 서울 잠실-삼성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정비사업 규제강화 · 법인의 주담대 금지, 종부세율 인상 및 공제 폐지 등 · 법인 주택 양도세 추가세율 인상
2020년 7.10 대책	·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완	· 다주택자 세제 강화 (종부세 증과율, 단기거래 양도세율,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인상)
2021년 2.4 대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 공공택지 신규지정 · 단기 주택 확충

코스피지수와 일평균 거래대금



자료: 한국거래소

03

부자와 대중부유층

자산 관리 ① 금융 자산

초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정책 자금이 공급되면서 풍부한 유동성이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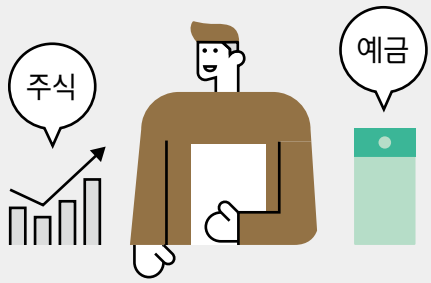
유동성은 대부분 주식시장과 단기 금융상품으로 유입되었는데,
특히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식투자 열풍은 우리나라 가계 포트폴리오 조정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을 정도로,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초저금리 시대,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지난해 투자 성과는 어땠으며,
올해 어떤 투자전략을 갖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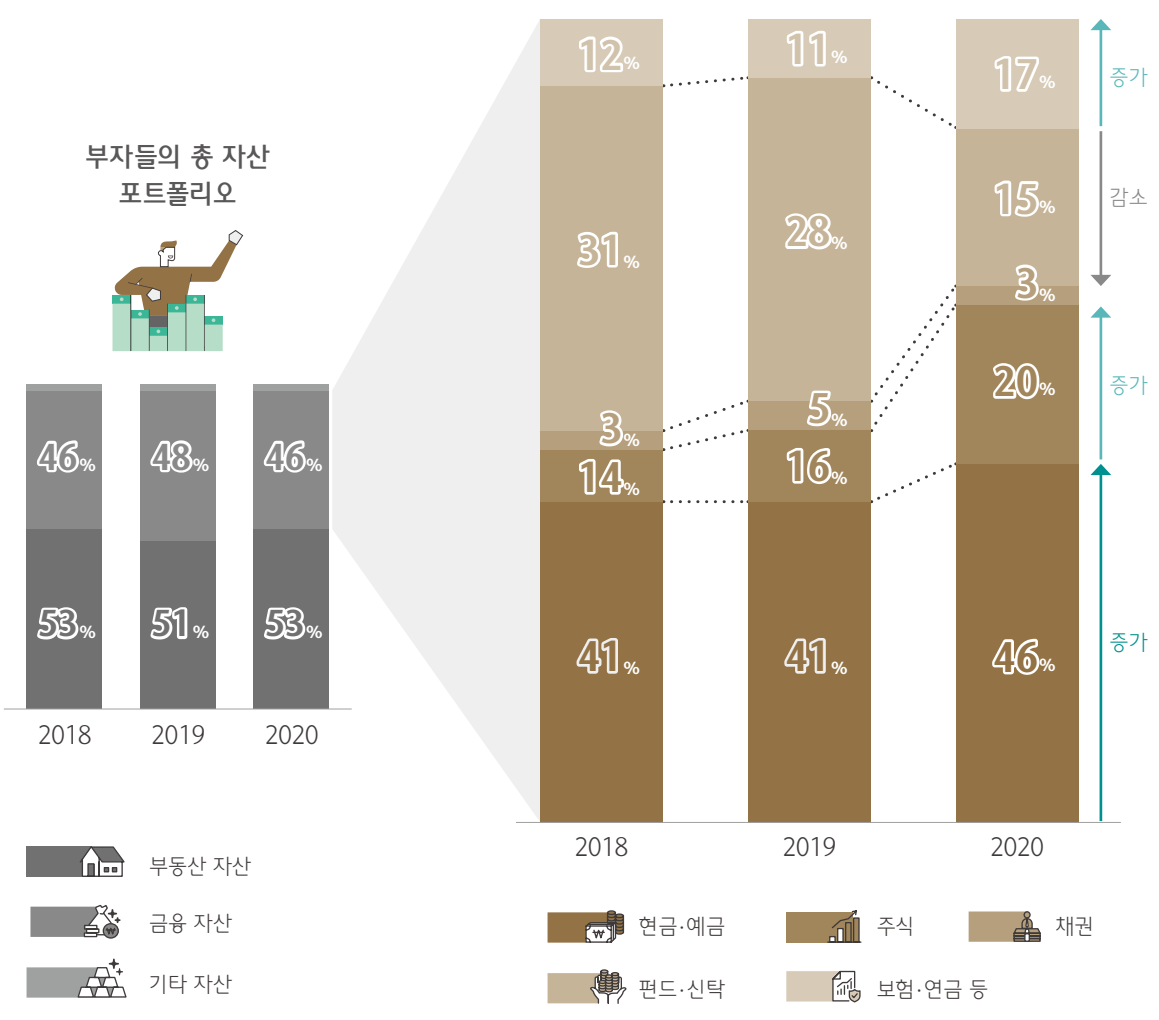
부자들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현금·예금 및 주식 비중 확대, 펀드 및 신탁 비중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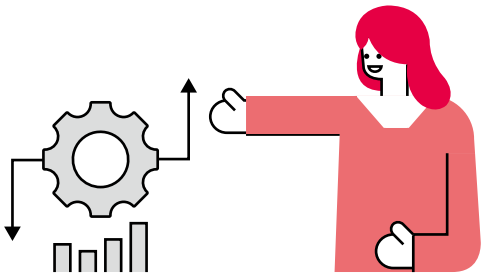
작년, 풍부한 유동성은 대부분 주식시장과 단기 금융상품으로 유입되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의 변화 속에서 부자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2020년 말 부자들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열어보면, 현금 및 예금이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46%), 주식(19.5%), 보험/연금 등 기타자산(16.6%), 펀드 및 신탁(14.9%), 채권(3%) 순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지난해 부자들은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대폭 조정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팽배하던 지난해, 현금 및 예금의 비중은 대폭 늘렸고, 주식투자 확대와 주가 상승에 따라 주식 비중도 크게 늘었다. 고액자산가들이 선호하던 사모펀드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펀드 및 신탁 비중이 크게 축소된 반면, 변액 보험 등의 가입 증가로 보험 및 연금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부자들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며 위기에 대응했다.

부자들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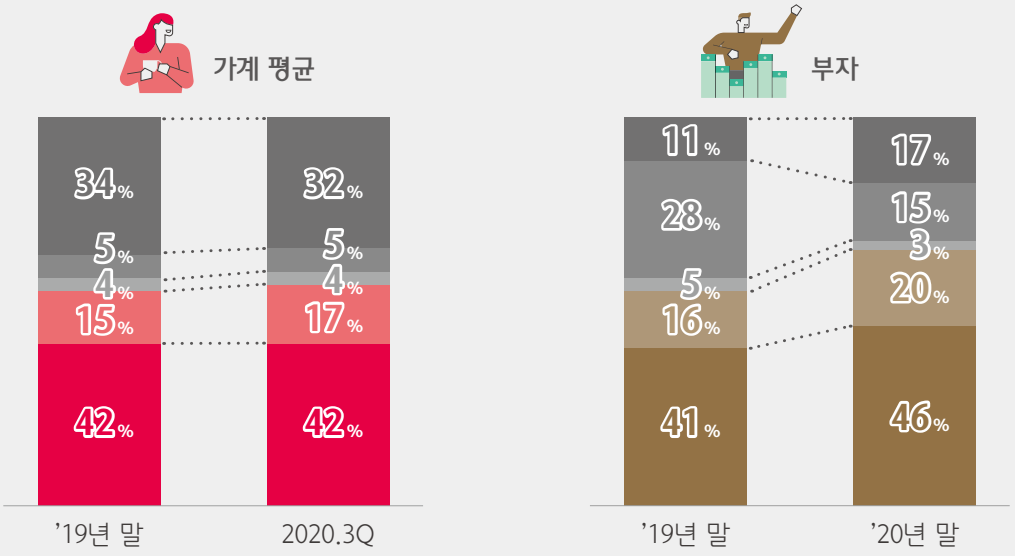
[참고] 가계 평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와 비교

부자들은 작년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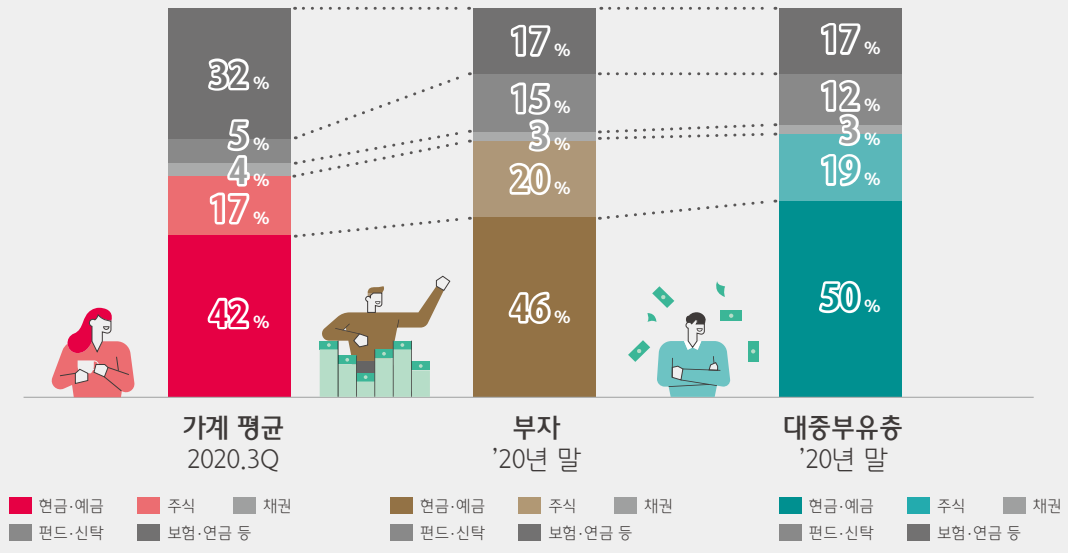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평균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작년 3분기 기준, 19년 말 대비 보험 및 연금이 1.5%p 줄고, 주식 비중이 1.6%p 증가했다. 부자들은 가계 평균에 비해 지난해 안전자산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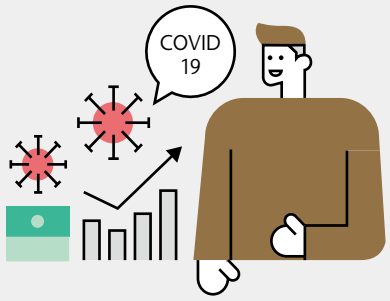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비교 (가계 평균 vs. 대중부유층 vs. 부자)



주: 가계 평균은 20년 3분기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주식 투자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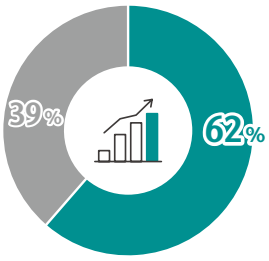
대부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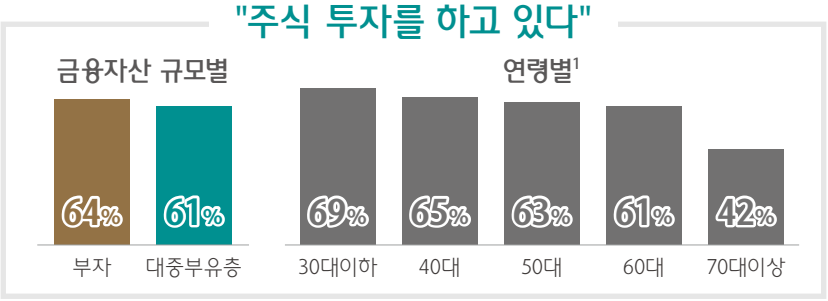


부자와 대중부유층 모두 주식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상당수(62%)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며, 특히 50~60대들도 활발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 중 약 19%는 향후 주식투자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절반은 코로나19 이후 주식투자 비중을 늘렸다. 추가로 투자한 주식투자 자금은 대부분 '보유하고 있던 현금이나 만기된 예금' 등 여유자금으로 투자했으며,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는 비중은 4%에 불과했다. 빚투 열풍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위험자산에 대한 대중부유층과 부자들의 신중한 투자 성향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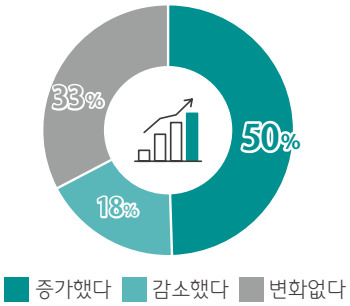
현재 주식투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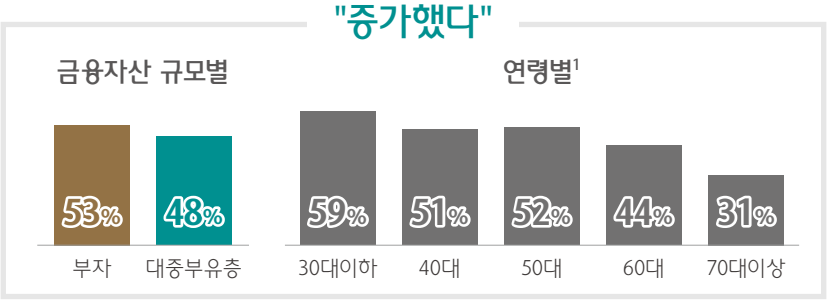




1: 연령별 비교는 부자와 대중부유층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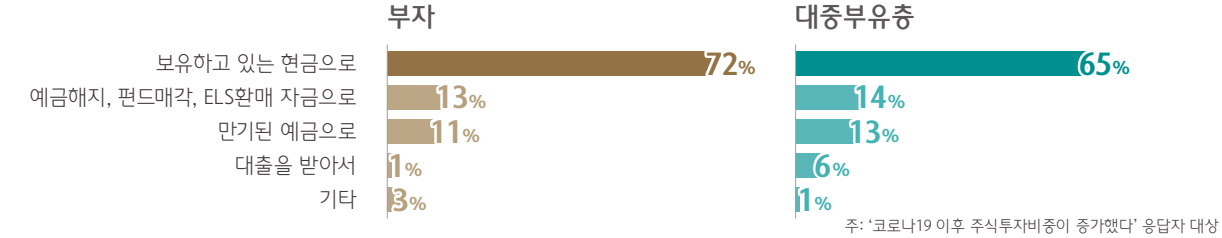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주식투자 비중





1: 연령별 비교는 부자와 대중부유층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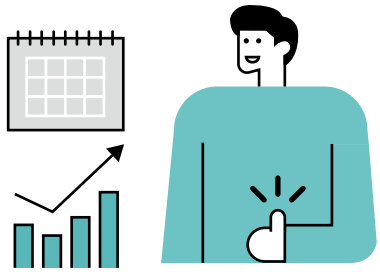
코로나19 이후 추가로 투자한 주식투자 자금 마련 방법



주: '코로나19 이후 주식투자비중이 증가했다' 응답자 대상

주식 시장 전망

올해 주식 시장 긍정적 전망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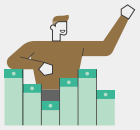


주식투자 열풍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확대된 개인들의 주식투자는 올해 들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와 글로벌 경기 회복 전망 등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특히 대기성자금의 규모가 상당해, 추가 자금 유입 여력도 큰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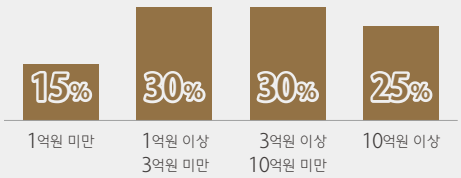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경기와 부동산 시장 전망은 부정적이었던 반면,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하락보다는 상승 전망이 우세했다. 대중부유층의 41%, 부자들의 34%는 완만한 상승을 예상했다. 현 상태로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대중부유층의 33%, 부자의 30%였다.

주식투자액과 해외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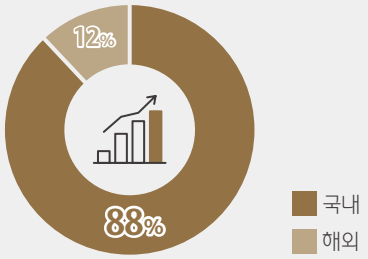
주식 보유액 규모



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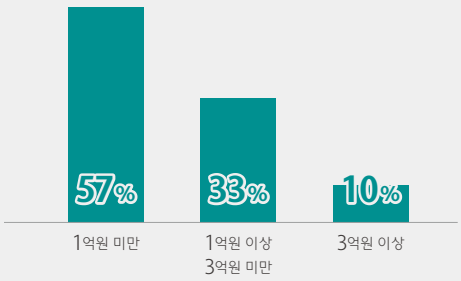


해외 vs. 국내 주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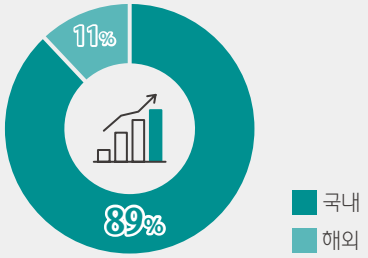


주식 보유액 규모

대중부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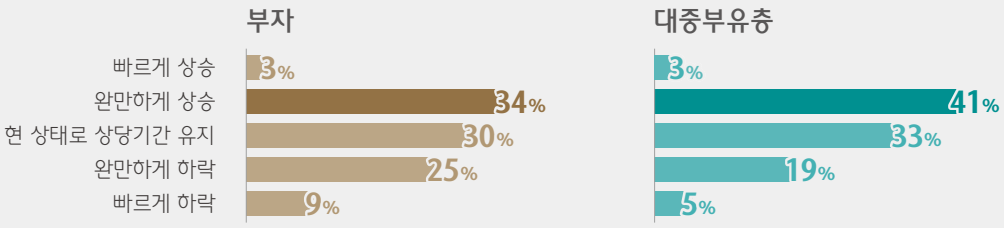
해외 vs. 국내 주식 비중



2021년 주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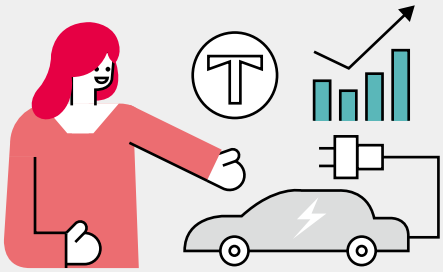
"대부분 올해 주가 전망에 긍정적인 편"

(단위: %)



외화 자산 투자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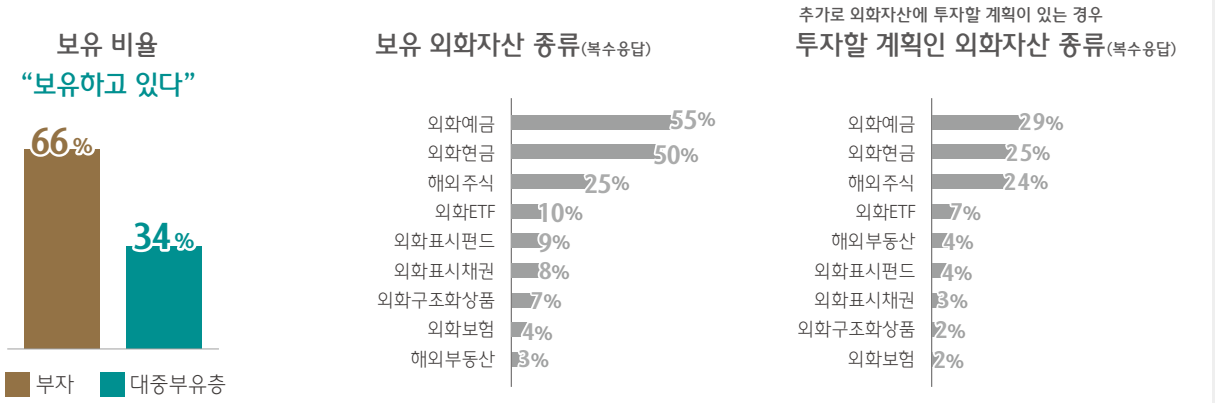


부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추구, 리스크 분산, 초저금리에 따른 수익 추구 등을 위해 외화자산에 활발히 투자해왔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의 종류는 외화예금(55%)과 외화현금(50%)이 주를 이루며, 다음으로는 해외주식(25%), 외화ETF(10%) 순이었다.

부자들의 경우 재작년에 비해 외화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줄고(44%→35%), 해외주식은 늘어(6%→12%), 작년 부자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주식의 직접 투자도 확대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추가 투자 계획에서도 해외 주식에 대한 응답이 지난해 대비 높아졌다. 올해에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외화현금·예금보다 해외주식에 대한 선호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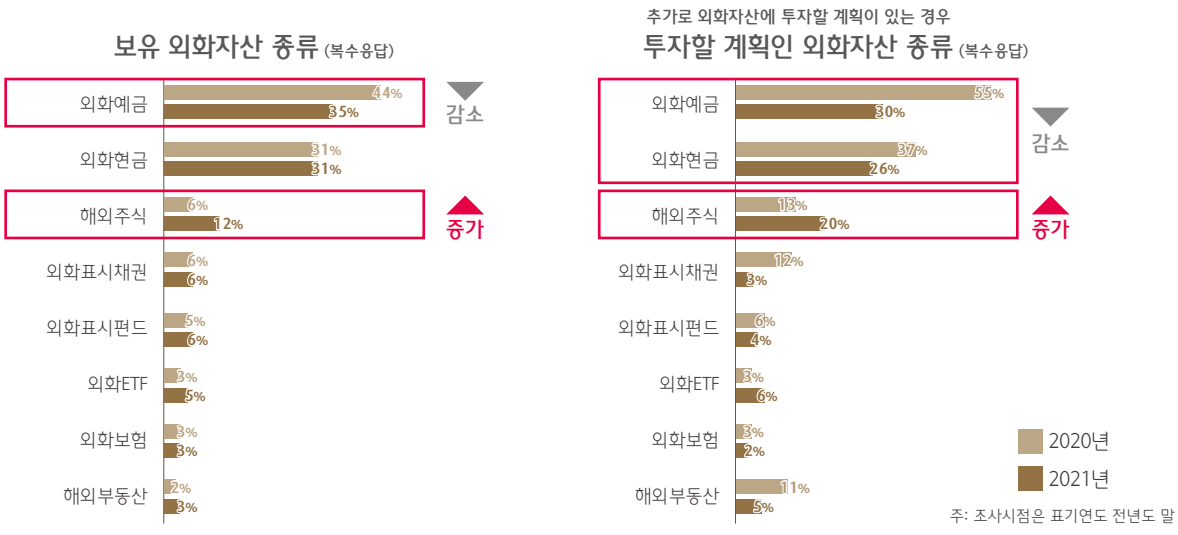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외화 자산 보유 현황 및 계획

※ 외화자산은 표시화폐가 외화인 금융상품, 유가증권 및 해외부동산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자산



주: 부자와 대중부유층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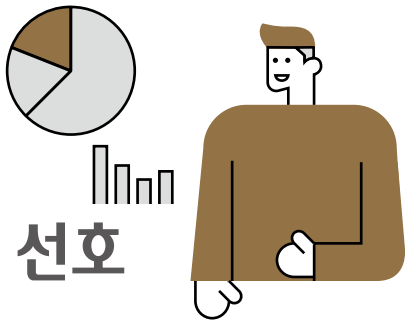
부자들의 외화자산 보유 현황 및 계획 변화



주: 조사시점은 표기연도 전년도 말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할 계획인가

주식 선호 현상 지속, 정기예금과 단기금융상품도 여전히 선호



올해 투자할 계획인 금융상품으로는 주식 직접 투자와 주식형 펀드 모두 선호도가 작년대비 급격히 상승해, 올해에도 부자들과 대중부유층의 주식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자산과 예비성 자금인 은행 정기예금과 단기 금융상품도 여전히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융상품이었다.

수년간 부자들이 선호해온 지수연계상품은 각종 금융사고로 인해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순위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상품 중 하나였다. 다만 현재 지수연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의 경우, 향후 지수연계상품에 대한 투자비중을 유지하거나(41%), 비중을 줄이겠다(38%)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나, 지수연계상품에 대한 투자 심리는 다소 저조한 편이었다.

올해 투자할 계획인 금융상품 Top 7

부자

상품	선호 응답 비율 1,2,3순위 응답 통합	선호 응답 비율 1순위 응답
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 1년 미만, MMDA, MMF, CMA 등)	43%	21%
지수연계증권/신탁/펀드 (ELS, ELT, ELF)	42%	17%
은행 정기예금 (만기 1년 이상)	41%	19%
주식 직접투자 (ETF 제외)	36%	15%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달러 등 외화 자산	28%	8%
위안화, 달러화 예금 등 외화예금	28%	7%
주식형 펀드 (공모형)	21%	4%

대중부유층

상품	선호 응답 비율 1,2,3순위 응답 통합	선호 응답 비율 1순위 응답
은행 정기예금 (만기 1년 이상)	51%	24%
주식 직접투자 (ETF 제외)	44%	22%
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 1년 미만, MMDA, MMF, CMA 등)	39%	14%
지수연계증권/신탁/펀드 (ELS, ELT, ELF)	28%	10%
주식형 펀드 (공모형)	25%	6%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달러 등 외화 자산	21%	5%
위안화, 달러화 예금 등 외화예금	18%	4%

주: 1,2,3순위 응답 통합의 경우 합이 10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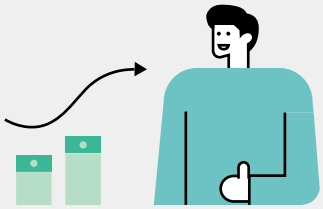
부자들의 선호 금융상품 변화

	상품	작년대비	2021년	2020년	2019년
1	단기 금융상품 (정기예금 1년미만, MMDA, MMF, CMA 등)	▼	43%	47% (2)	51%
2	지수연계증권/신탁/펀드 (ELS, ELT, ELF)	▼	42%	56% (1)	65%
3	은행 정기예금 (만기 1년 이상)	▼	41%	45% (3)	40%
4	주식 직접투자 (ETF 제외)	▲	36%	12% (9)	16%
5	해외 주식, 해외 채권, 달러 등 외화 자산	▲	28%	26% (5)	13%
6	위안화, 달러화 예금 등 외화예금	▼	28%	29% (4)	24%
7	주식형 펀드 (공모형)	▲	21%	14% (8)	11%

주1: 괄호 안은 순위
주2: 연도는 응답 시점이 아닌 투자 계획 연도 기준 (응답 시점의 차년도)

지난해 금융자산 수익률은?

기대이상의 '양호한 수익률', 주식(직접투자, 주식형펀드) 덕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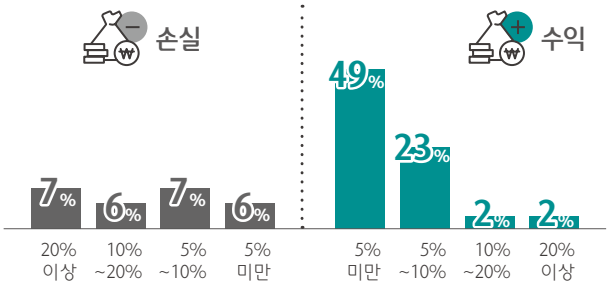


2020년, 부자들은 2019년보다 우수한 투자성과를 거뒀다. 2019년 말 당시 세웠던 목표보다도 더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작년 금융자산 투자 수익률은 5% 미만에 그쳤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49%), 올해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비율이 전년보다 15%p 감소하고, 10% 이상의 고수익을 거뒀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년대비 크게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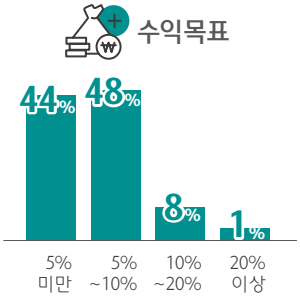
10% 이상의 고수익을 거두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중부유층은 21%, 부자는 23%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식 직접투자(49%)와 주식형펀드(13%) 덕분이었다고 응답했다. 반면 10% 이상 손실을 기록한 응답자들에게도 주식 직접투자(25%)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준 금융자산이었다.

부자들의 금융자산 수익률

2019년 금융자산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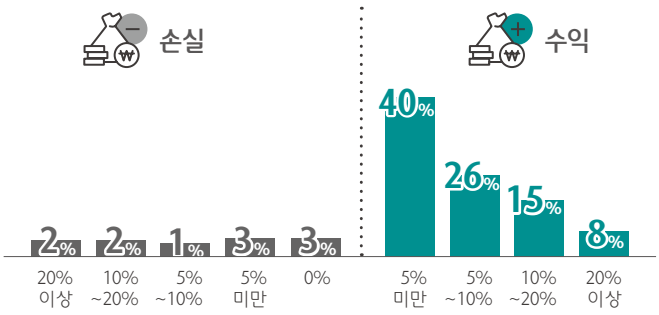


2019년말, 당시 세웠던 2020년 목표



**"부자들은 재작년(2019년)보다,
기대했던 수익률보다 작년(2020년)에 '높은 수익률'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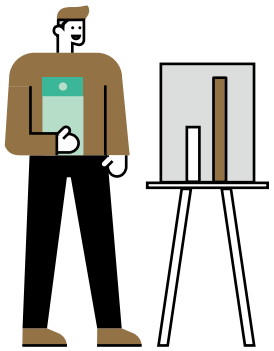
2020년 금융자산 수익률



2020년 수익률, 어떤 자산 덕분이었나?

금융자산 수익률 10% 이상을 거둔 대중부유층과 부자들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금융자산

주식 직접투자	49%
주식형 펀드	13%
외화자산 (해외주식, 해외채권, 달러 등)	9%
지수연계증권/신탁/펀드 (ELS, ELT, ELF)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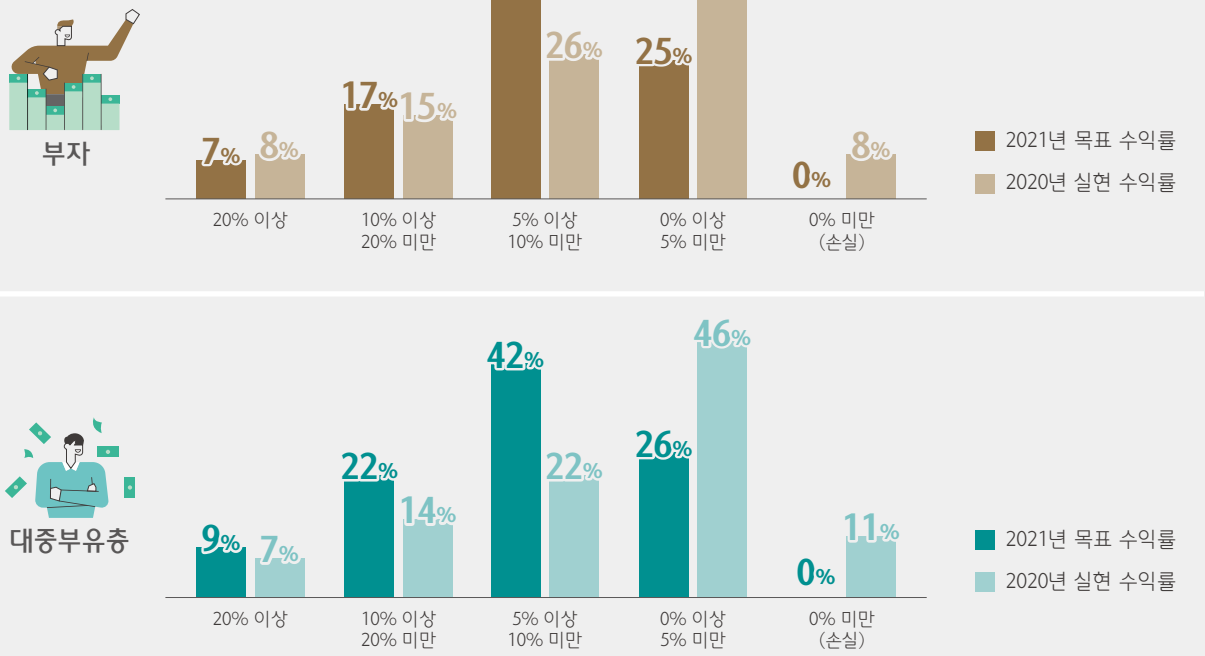


올해 금융자산 수익률 목표는?

작년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올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전망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자보다 대중부유층의 목표수익률이 더 공격적인 편이며, 10% 이상 고수익을 목표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주식 직접투자, 외화자산, 주식형펀드, 지수연계증권 등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안전 자산 및 예비성 자금인 은행 정기예금, 단기금융상품의 응답 비중도 높은 편이다.

금융자산 수익률 : 지난해 실현 수익률 vs 올해 목표 수익률



지수연계상품 투자 계획

금융자산 목표수익률 10% 이상 부자와 대중부유층

32% 지수연계상품 투자비중 증가

"일부 증가시킬 것이다" 27%
"크게 증가시킬 것이다" 5%

19% 지수연계상품 투자비중 감소

"일부 줄일 것이다" 13%
"크게 줄일 것이다" 6%

수익률 10%이상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주식 직접 투자, 지수연계증권/신탁/펀드(ELS, ELT, ELF), 외화 자산(해외 주식, 해외 채권, 달러 등), 주식형펀드의 투자 의향이 높다고 응답.

특히 지수연계상품의 경우,
'투자 비중을 증가시키겠다'는 응답률이 높은 편.

03

부자와 대중부유층

자산 관리 ② 부동산

부동산은 작년 한 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전국 주택매매거래 총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주택 매매가격도 전국적으로 8.3%까지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린 비수도권까지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동시에 각종 규제 정책이 쏟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예측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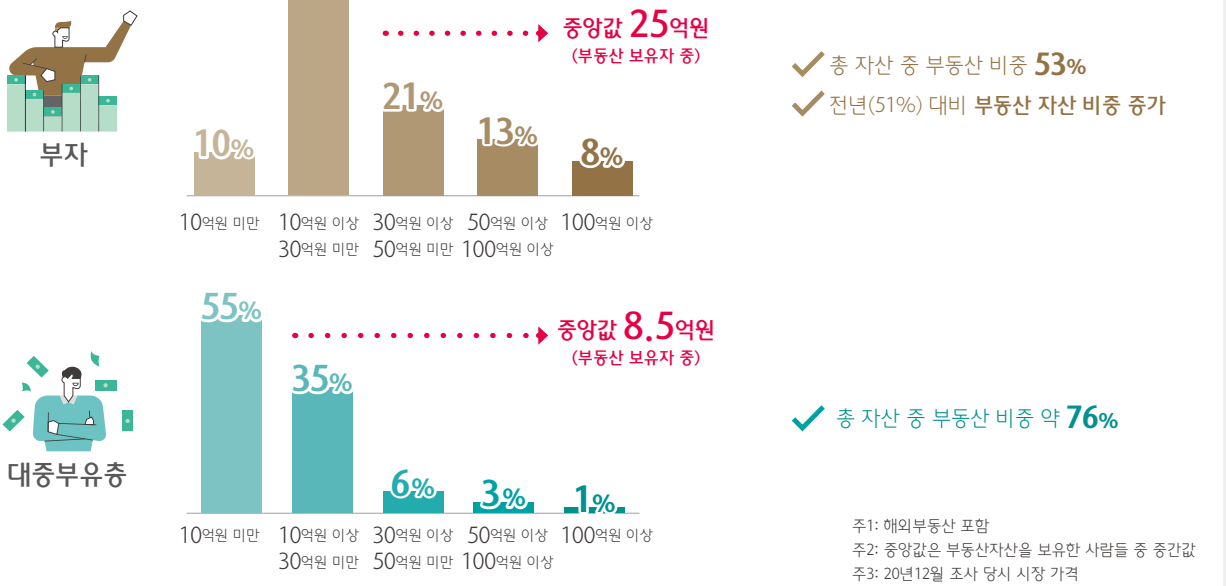
앞서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올해 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는 편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총 자산 중 부동산 자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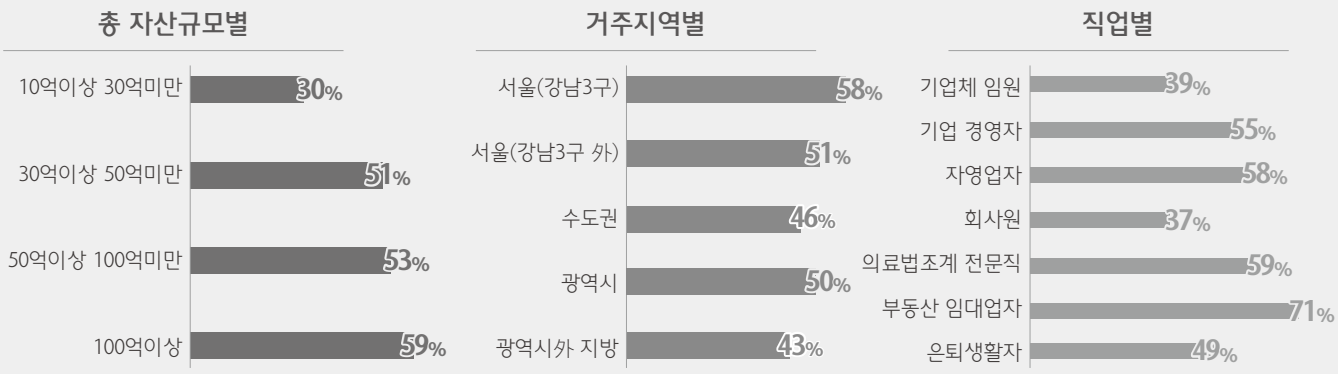
부자들은 총 자산의 53%
대중부유층은 76%가 부동산자산으로 구성

국내 일반 가계의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3월 말 기준 평균 가구의 총자산 중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 전월세 보증금 포함시 약 78%에 달했으며, 부동산 보유 가구의 중앙값은 2억 8천만원이었다. 평균 가구에 비해 부자들은 보유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크지만,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다. 대중부유층의 경우 부자만큼은 아니지만, 평균 가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부자들의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53%, 중앙값은 25억원이었으며, 대중부유층의 부동산 자산 비중은 약 76%, 중앙값은 8억 5천만원이다. 자산규모로는 총 자산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자산가가, 거주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3구 거주자, 직업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동산 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다.

부동산 자산 규모



부자들의 총 자산 중 부동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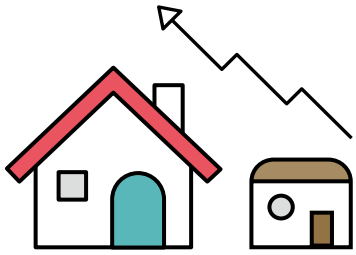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

주: 직업의 경우, 가정 내 주소득자 기준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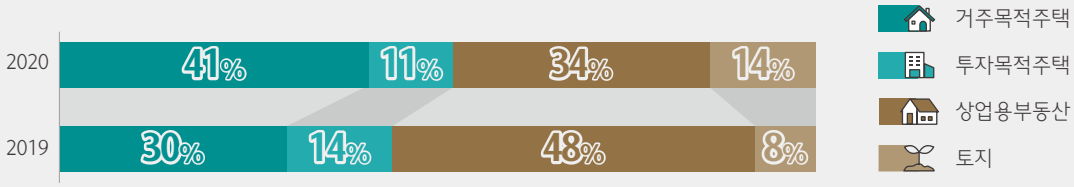
거주목적주택 비중이 상업용 부동산을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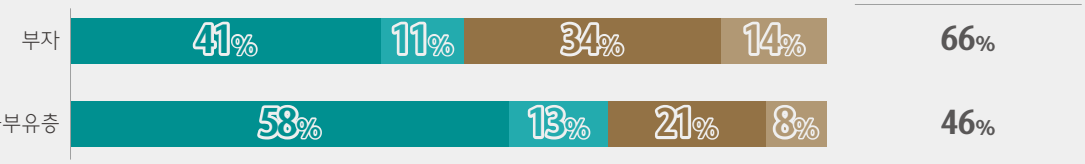
부자들의 부동산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2019년까지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48%), 지난해에는 달랐다. 거주 목적 주택의 비중이 크게 늘어(30%→41%) 상업용 부동산 비중(48%→34%)을 추월했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 보유세 증가로 인한 다주택자의 자산 정리, 코로나19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 임대 수익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저하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총 자산 규모가 클수록 거주 목적 주택 외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보유 비율과 총 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 모두 높아졌다. 고액자산가일수록 거주 외에도 안정적인 수익 확보, 분산 투자, 절세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총 자산 100억원 이상 부자들의 경우 빌딩과 같은 거액 부동산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상업용 부동산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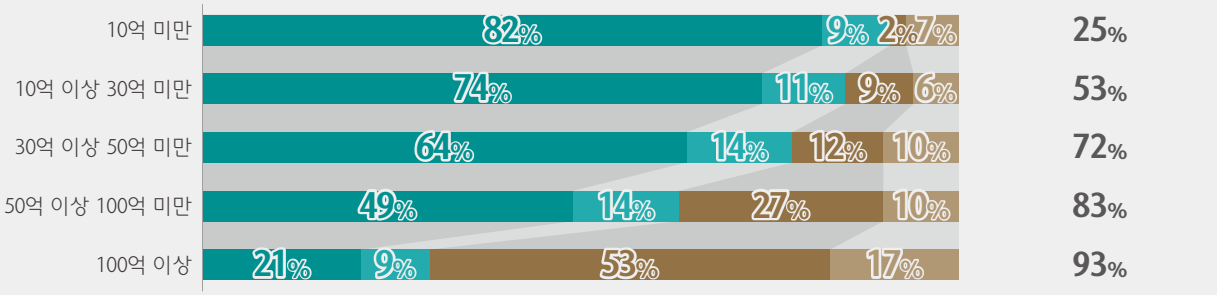
부자들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 2019년 vs. 2020년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성: 부자 vs. 대중부유층



총 자산 규모별 부동산 포트폴리오



주: 총자산규모별 비교는 부자와 대중부유층 통합

주1: 해외부동산 포함
주2: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보유 부동산 포함

부동산에 대한 부자들의 입장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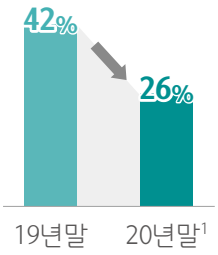
유보적인 입장은 줄고, ‘현상태를 유지하겠다’ 응답 비율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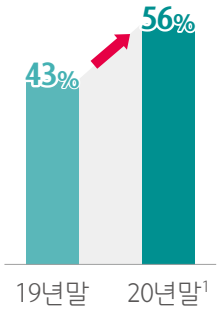
지난 해와 현재, 부자의 부동산 계획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부동산 거래에 있어 ‘향후 정책 변화 등 추이를 살펴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은 확연히 줄었고,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늘었다.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확인하였고,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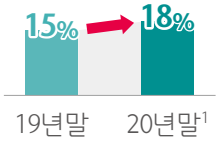
매입의 경우, ‘매입할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56%로 가장 높았으며(전년비 13%p 증가), 매각의 경우 ‘현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56%로 가장 높았다(전년비 4%p 증가). ‘지난해 매각을 했거나 매각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약 17%였는데, 전년보다 응답률이 8%p 상승했다. 매입 의사과 매각 의사를 보인 응답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의 부동산 매입, 매각 계획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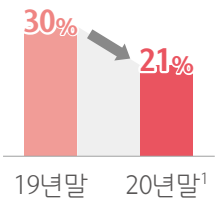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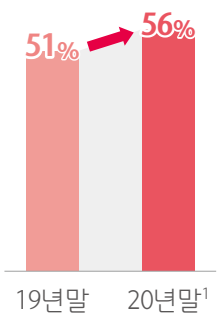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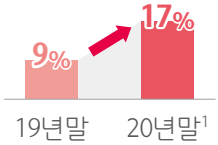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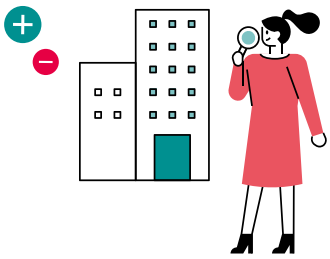




1: 조사 시점 기준
주: 기타 응답 제외

부동산 투자 계획

현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나, 매입·매각 1순위는 중소형 아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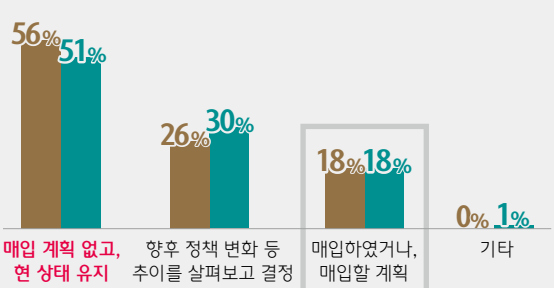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부동산 투자 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중부유층과 부자 모두 절반 이상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매입하였거나 매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대부분 중소형 아파트를 1순위로 꼽았다. 매각하였거나 매각할 계획인 부자들은 토지, 대중부유층은 중소형 아파트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매입과 매각 의향을 교차 분석한 결과, '매입, 매각계획 모두 없다'(36%)와 '매입매각 모두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10%) 응답이 절반을 차지, 적극적인 부동산 자산 변경 계획을 갖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높지 않았다.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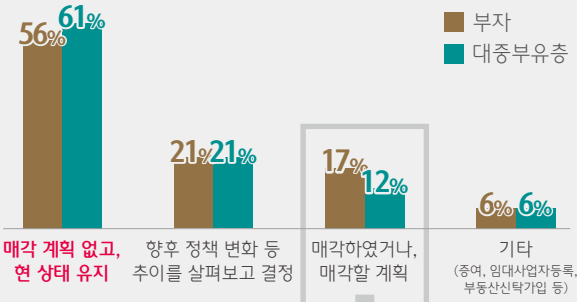
지난 해 보유 부동산을 매입하였거나, 향후 매입 계획



	부자	대중부유층
1. 중소형아파트	37%	53%
2. 상가/상가빌딩	32%	13%
3. 대형아파트	28%	18%

매각

지난 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였거나, 향후 매각 계획



	부자	대중부유층
1. 토지	30%	21%
2. 중소형아파트	22%	45%
3. 상가/상가빌딩	20%	9%

* 다중 응답으로 합계는 100이 넘을 수 있음

매입 의향과 매각 의향 교차분석 결과[1]

"매입, 매각 계획 모두 없다"	"매입, 매각 모두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	"매각은 계획 없으나, 매입은 향후 추이 보고 결정"	"매입은 계획 없으나, 매각은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
36%	10%	13%	10%

주: 교차분석은 부자와 대중부유층 통합

코로나19 이후 상업용 부동산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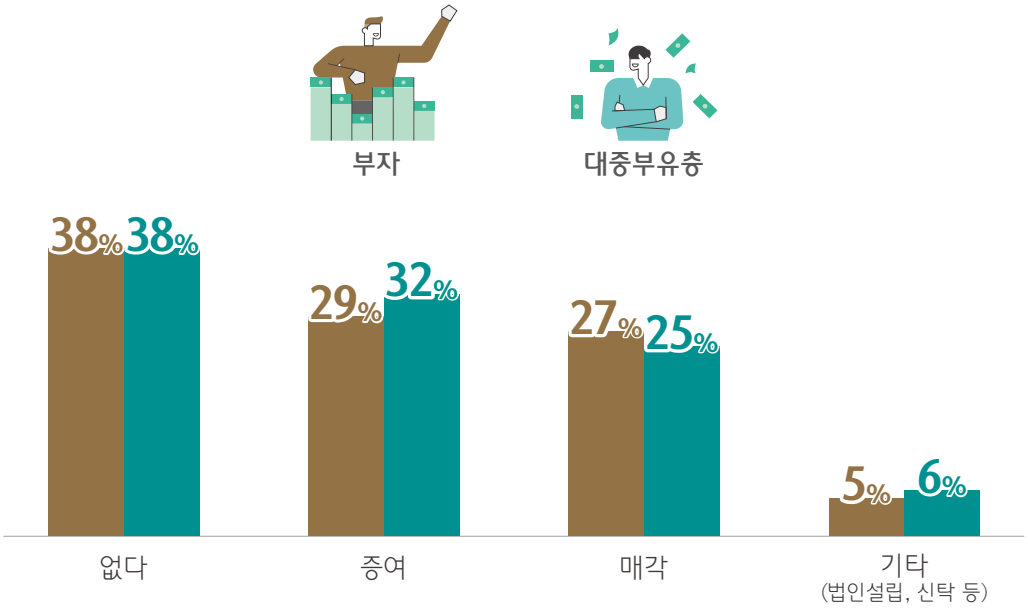
경기에 민감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투자 의향은 부정적인 편이었다. 공실 발생 등 리스크 증가로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40%)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30%)는 유보적인 입장이 대다수였다. 다만 우량 상업용 부동산에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갖춘, 부동산 자산만 1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투자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29%) 나타났다.

종부세 부담 증가에 따른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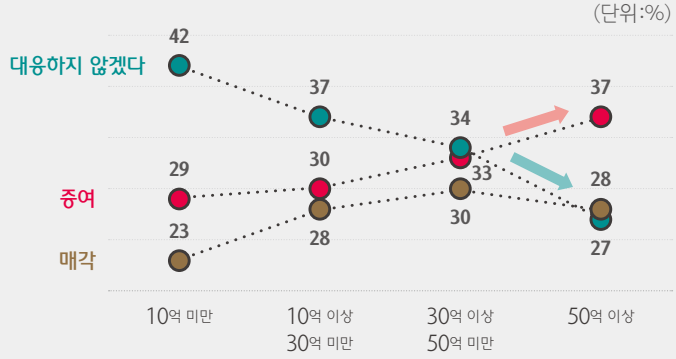
대응 방안 없다, 증여, 매각 순

보유 부동산 규모가 큰 부자들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특히 이슈이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인 바, 절세를 위한 대응 방법으로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현재로서 뚜렷한 대응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38%) 매각(26%) 보다는 증여(30%)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특히 부동산 고액자산가일수록, 종부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을 취할 것으로 보이며, 보유 부동산 50억원 이상 부동산 고액자산가들은 증여 의향이 매각보다 상당히 우세했다.

종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절세를 위한 대응 방안



부동산 자산 규모별



주: 부자와 대중부유층 통합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는
부동산 고액자산가의 경우
'대응하지 않겠다' 응답비율이 낮아지는 경향

특히 보유 부동산 자산 규모 50억원 이상의 경우, 증여 선호도 증가"

04

부자와 대중부유층

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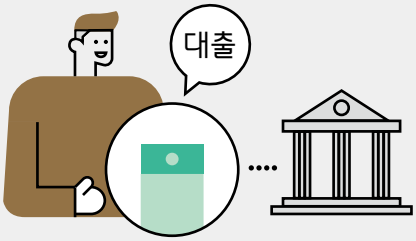
연일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켜지고 있다.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자금 수요 뿐 아니라,
2030세대의 영끌, 빚투 등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트렌드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대출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는 목적은 무엇인지,
올해 대출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자.

대출 현황

부자 가구의 26%, 대중부유층의 39%는 대출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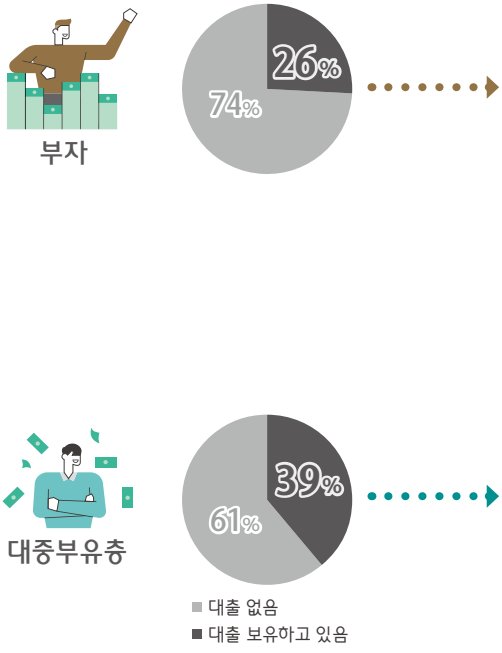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계부채는 100조원 이상 증가하고, 가계대출 증가폭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1] 코로나19에 따른 생계자금 수요, 영끌, 빚투 등으로 표현되는 금융자산 투자 및 주택 매매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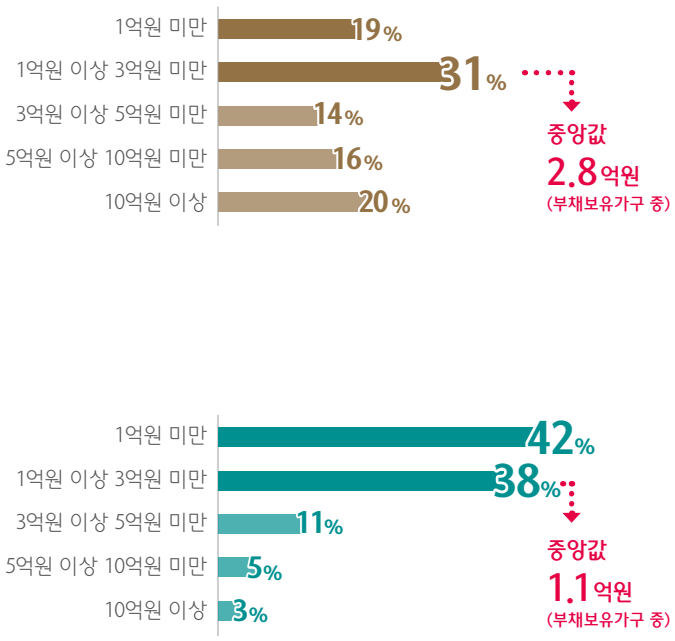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평균 가구에 비해 부채 보유 비율은 확연히 낮았지만, 금액은 많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약 58%이며, 중앙값은 약 5천5백만원인데 반해, 부자 가구는 26%만이 부채를 보유하고 중앙값은 2억8천만원, 대중부유층은 39% 가구, 중앙값은 1억1천만원이었다.[2] 특히 일반적으로 60대 이상 가구의 경우, 금융자산 대비 금융 부채 비중이 증가,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해지는 경향을 보이나(50대 82%, 60대 106%, 70대 이상 127%),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고령층에서도 금융자산 대비 채무상환여력은 충분한 편이었다(50대 86%, 60대 77%, 70대 이상 47%).[3]

부채 보유 가구 비율 및 부채 규모별 보유 가구 수

부채 보유 가구 비율



부채 규모별 보유 가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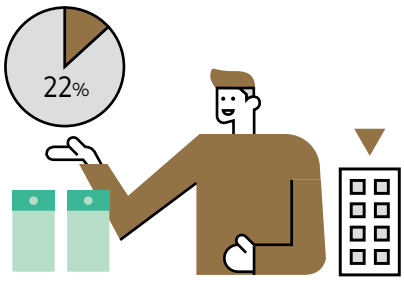


주: 부채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가구 기준

1: 한국은행, 2020년 4/4분기중 가계신용
2: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20
3: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9

대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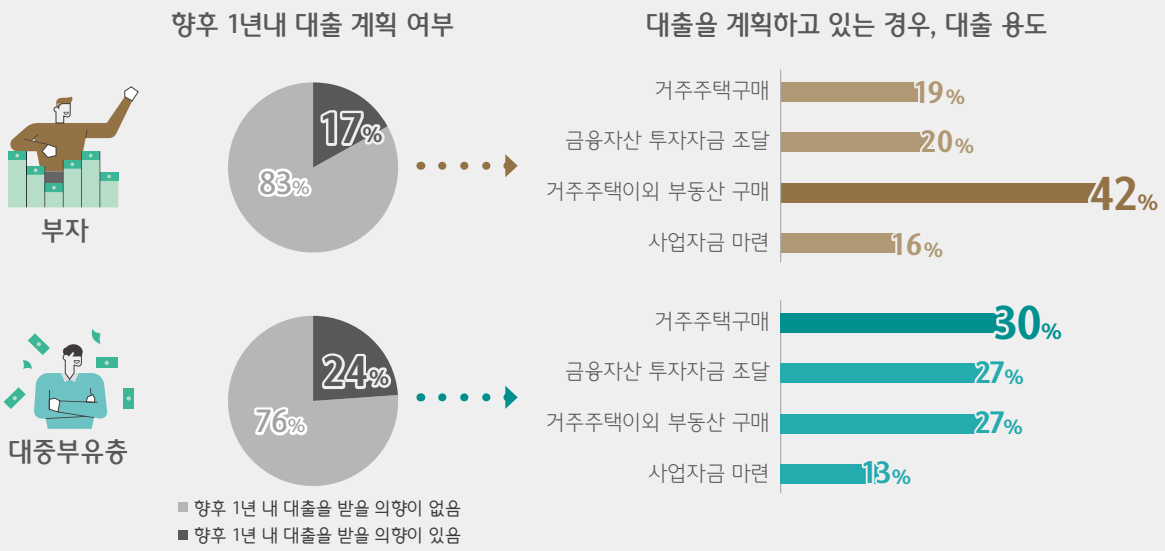
22%는 올해 대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부분 투자 목적



향후 1년 내 대출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부자는 17%, 대중부유층은 24%였다. 대출을 계획하는 이유로 부자들은 주로 '거주주택 외 부동산 구매'를 목적으로, 대중부유층의 경우 거주주택 구매와 함께 거주주택 외 부동산 구매, 금융자산 투자자금 등 다양한 목적으로 대출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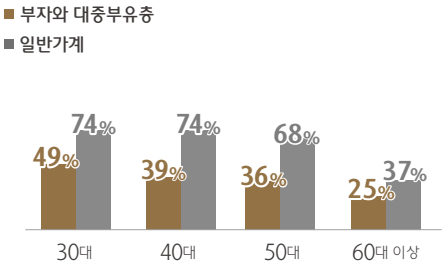
특히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들 중 60%가 기존에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처럼 추가 대출을 계획하는 경우, '금융자산 투자자금 조달 용도'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부자들의 경우, 50~60대에서 적극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향후 1년내 대출 계획 여부 및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대출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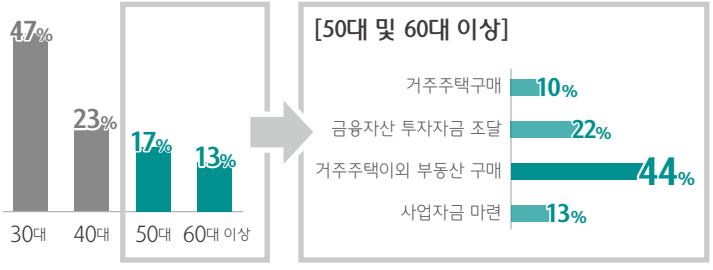


고령자 부자들의 대출

연령대별 부채 보유 가구 비율 (단위:%)



연령대별 부자들 중 1년내 대출 계획 '있다', 그 이유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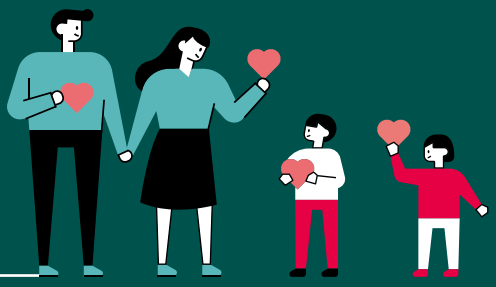


주: 담보대출, 신용대출 포함

05

부자와 대중부유층

상속과 증여



‘상속과 증여’는 부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다.

작년 동연구소의 Korean Wealth Report에 따르면,
부자들이 시드머니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1순위 수단은 사업소득이었고,
그 다음으로 상속 및 증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앞으로 보유자산의 절반은
노후준비에 쓰고, 나머지 절반 가량은 상속 또는 증여를 하겠다고 했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자산을 자녀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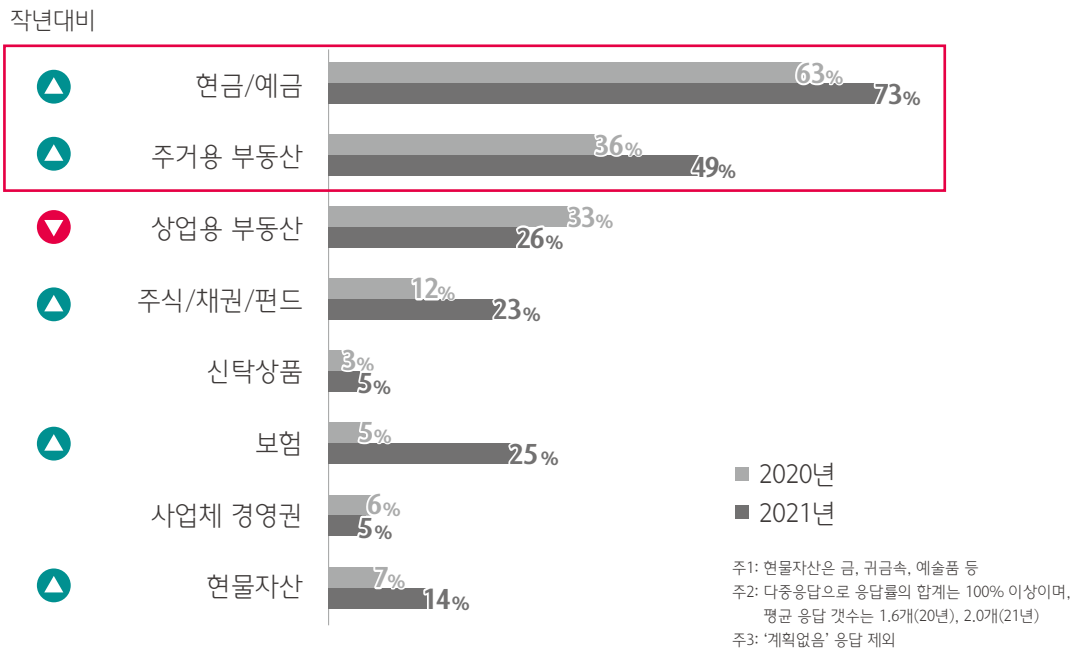
절세를 위한 증여, 부자들의 계획은?

현금과 예금, 주거용 부동산 선호도 증가

부자들은 올해에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가족간 증여의 방법으로 현금과 예금, 주거용 부동산을 가장 선호하였다. 현/예금, 보험, 현물자산, 신탁상품에 대한 증여 의향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으며, 보유세 및 양도세 부담이 늘어 증여세 증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증여를 택하는 부자들이 많아졌다.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19.2월)에 따라 꼬마 빌딩을 포함한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 강화, 코로나19로 임대시장의 침체 장기화 가능성 및 임대수익 불확실성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증여수단으로의 매력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부자들의 절세를 위한 증여 방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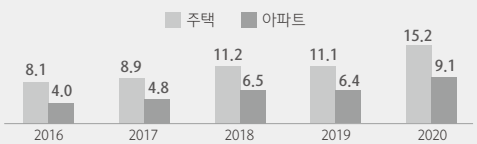


주1: 현물자산은 금, 귀금속, 예술품 등
주2: 다중응답으로 응답률의 합계는 100% 이상이며, 평균 응답 갯수는 1.6개(20년), 2.0개(21년)
주3: '계획없음' 응답 제외

부자들의 증여 트렌드: 주거용 부동산 vs.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보유세 낼 바에 증여세 내겠다"**

전국주택, 아파트 연도별 증여건 수 추이 (단위: 만건)



증여 의향 ↑

주택 보유세·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상향으로 주택 증여 역대 최고치 기록 '20.7월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서울 매매 대비 증여 건수 두배로 급증 17.4%('20.1H) → 35.7%('20.2H)

자료: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꼬마 빌딩, 상속 증여세 부담 늘어"**
"코로나 쇼크로 공실률 증가, 임대료 하락"

'20년 전국 상업용 부동산 임대가격지수 증감률 (단위: %)

증여 의향 ↓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급증하고 임대료 및 권리금은 급락

주: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부동산원

절세를 위한 증여, 부자 vs 대중부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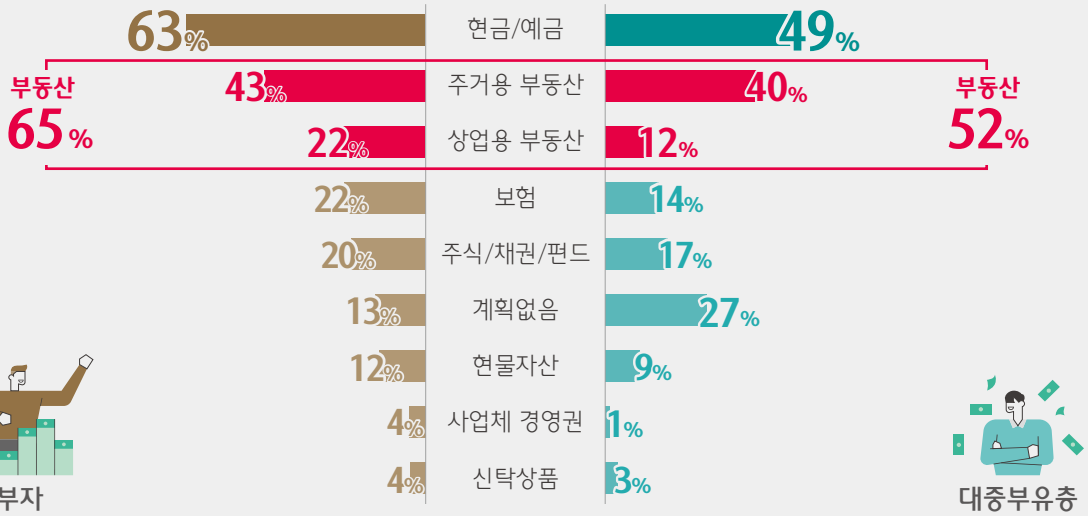
부자들은 여전히 부동산 선호,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 높아져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상속세 절세 목적의 가족간 증여 방법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들은 모두 현금 및 예금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부자들은 대중부유층에 비해 특히 부동산을 더 선호했는데, 상업용과 주거용을 합해 약 65%의 응답률을 보였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자산도 증여수단으로 선호했고, 특히 부자들의 선호도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주식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장기 투자 상품으로의 긍정적 인식 전환, 시세 변동을 감안한 증여 시점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증여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선호하는 증여 수단

"현금과 예금은 공통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
부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특히 높음"



주: 다중응답으로 응답률의 합계는 100% 이상

부자들과 대중부유층의 증여 트렌드: '주식 증여' 관심 증가

최근 주식 증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장기 투자 상품으로서의 주식의 가치가 재평가 받고 있고, 비과세 혜택, 주가 상승분에 대한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 없다는 점 등의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및 현금 증여 시에는 증여 시점에 시가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반면, 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으로 증여가액이 평가되기 때문에 시세변동을 감안해 증여시점을 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 등 증여 수단으로 '주식'을 보는 시각이 상당 부분 달라졌고,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자료: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 생애보고서 (50세 이상 퇴직자 1000명 대상 설문 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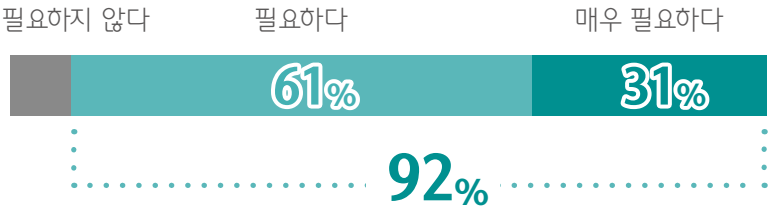
[참고] 상속·증여에 대한 대중부유층의 생각

대부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구체적인 준비는 아직 미흡

상속과 증여에 대한 준비를 해왔던 부자들에 비해, 대중부유층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7%로 높았다. 하지만 대중부유층은 상속·증여의 준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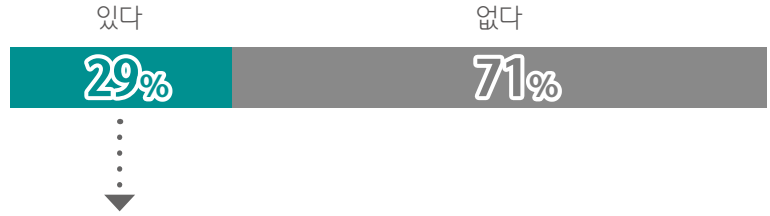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별도의 설문조사(2020.11)에 따르면, 대중부유층의 92%는 상속·증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중 31%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방법을 탐색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상속·증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준비를 했다고 응답한 대중부유층은 대부분 부동산 자산 보유 규모가 큰 자산가였으며,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이었다고 응답했다. 앞으로도 세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중부유층의 상속·증여에 대한 관심과 구체적인 준비에 대한 니즈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상속·증여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대중부유층)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대부분 상속·증여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상속·증여를 준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해 본 적이 있는가? (대중부유층)



"대부분 구체적인 방법을 탐색해본 적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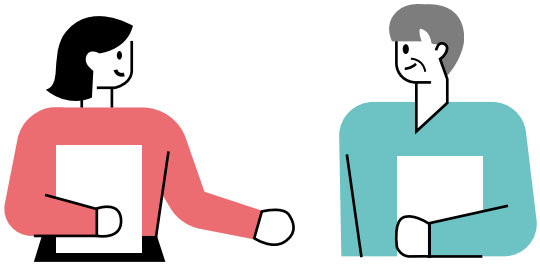
상속·증여 준비를 위해 구체적 방법을 탐색해본 대중부유층

보유 부동산 자산 규모가 큰 경우(부동산자산 10억 이상) 탐색 경험이 더 많음(39%)
대부분 '세금 문제 때문'(51%)이라고 응답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설문조사(금융자산 1억이상 보유자, 300명 대상), 2020

[참고] 대중부유층의 상속·증여 방식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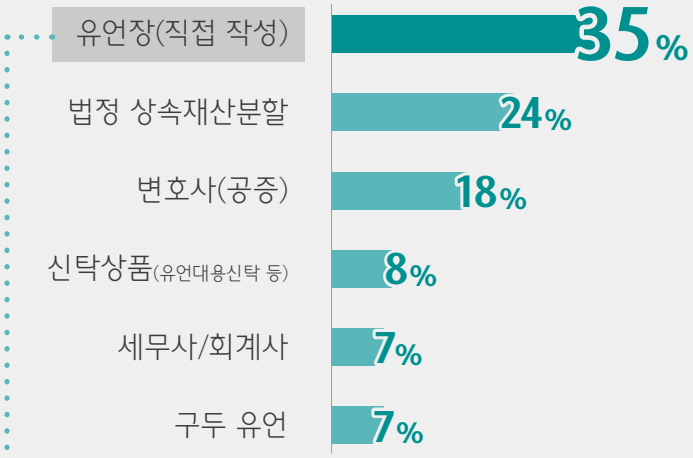
유언장 작성을 가장 선호하는 편



대중부유층은 상속 및 재산 정리 방식으로 유언장 작성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유언장 직접 작성을 선호하는 대중부유층의 절반 이상은 60대 고령자였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변호사 공증,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신탁상품 등을 선호하였다. 또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규모가 클수록 유언장 직접 작성보다는 변호사 공증을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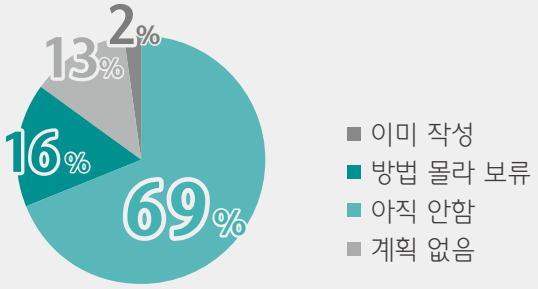
그러나 유언장 작성 선호도가 높은 것에 비해 이미 유언장을 작성한 비중은 1.7%에 불과하였다. 유언장을 이미 작성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자였으며, 대부분은 유언장 작성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해 보류하는 경우가 많다.

선호하는 상속·재산 정리 방식



"고령자일수록 유언장 작성을 선호
저연령층일수록 변호사를 통하거나,
신탁상품 가입 등을 선호"

유언장 작성 현황은?



"유언장을 선호하는 응답자들 중
대부분이 아직 작성하지 않았거나,
방법을 몰라서 보류 중"

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설문조사(금융자산 1억원 이상 보유자 300명 대상), 2020

06

부자와 대중부유층

노후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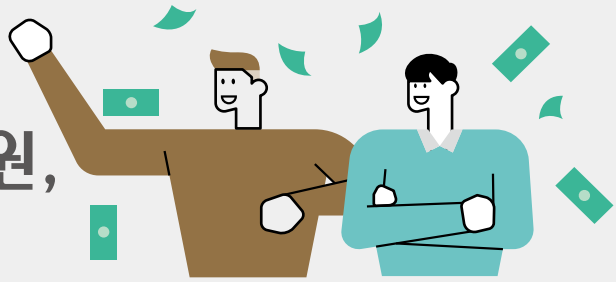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많은 이들이 은퇴 이후를 걱정하고 계획한다.

부자들과 대중부유층은 현재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공적연금 의존도가 높은 평균 가계에 비해 어떤 자산으로
은퇴 후 생활 자금을 설계하고 있을까?

은퇴 후 필요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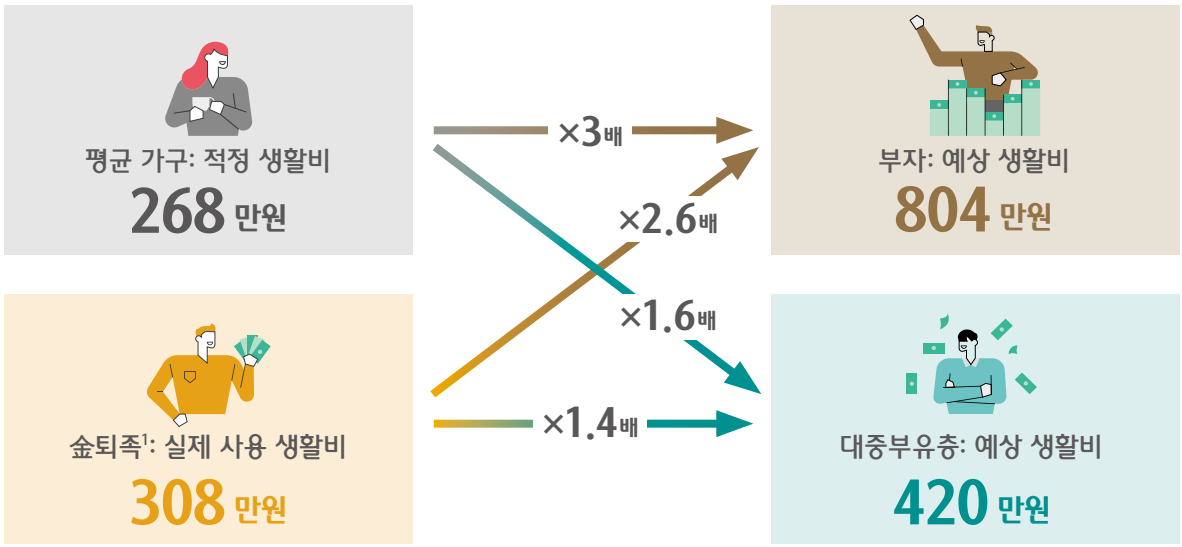
가구당 대중부유층은 420만원, 부자는 800만원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은퇴 후에도 상당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중부유층이 은퇴 후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생활비는 가구당 월평균 420만원, 부자는 804만원이었다. 일반 가구의 적정 노후 생활비 268만원 대비 대중부유층은 1.6배, 부자는 3배 수준이었다.

하나금융그룹에서 시행한 별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일반 은퇴자들 중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숲퇴족'의 월 생활비 지출은 308만원이었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현재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 가구 중 노후 준비가 잘되어 있는 숲퇴족보다도 더 많은 생활비 지출을 예상하고 있다.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은퇴 후 필요 경비 (월 평균, 가구 기준)



1: 숲퇴족은 50대 이상 퇴직자들 중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평가한 사람들
자료: 평균 가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2019
자료: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 생애보고서(50세 이상 퇴직자 1,000명 대상 설문 조사), 2020

퇴직 후 생활비 감소: 일반인 vs. 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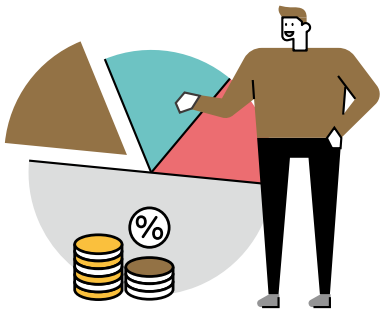
일반 퇴직자는 은퇴 후에 생활비의 약 29%를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퇴직자 절반은 재취업(37%)이나 창업(19%)을 통해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미취업자 역시 64.8%는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취업 대기자로 다수가 생활비를 경제 활동에 의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자도 퇴직 후에 생활비 지출을 감소할 계획은 동일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부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비는 약 1,100만원으로,
은퇴 후 예상 생활비와 비교해보면, 부자들도 은퇴 후 기존 생활비의 약 27%를 줄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 생애보고서(50세 이상 퇴직자 1,000명 대상 설문 조사), 2020

부자들의 노후 준비: 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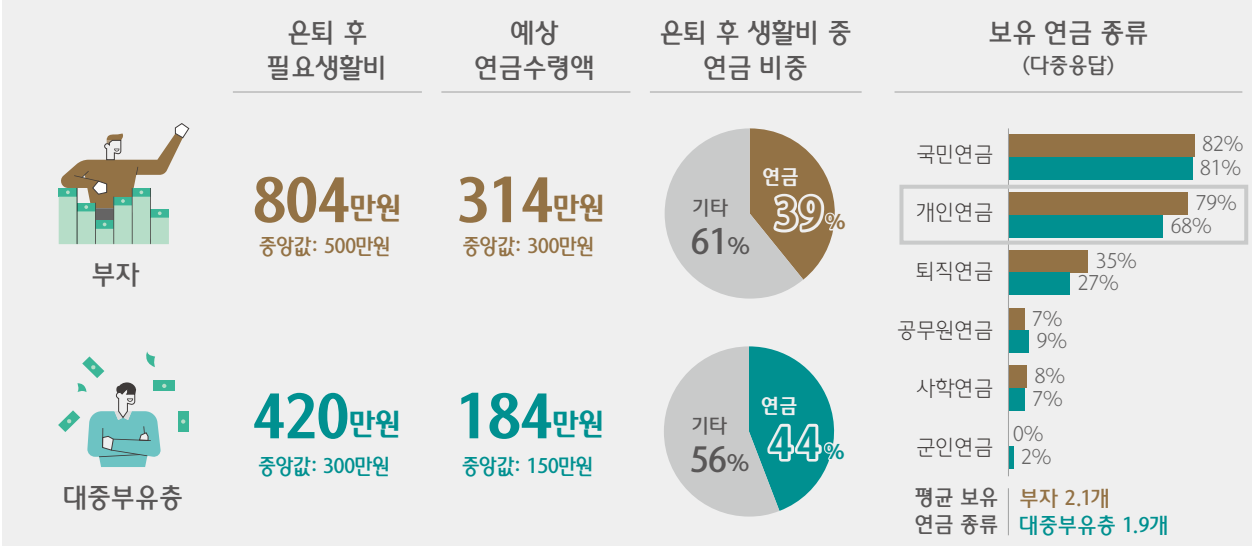
연금으로 은퇴후 생활비 준비는 39%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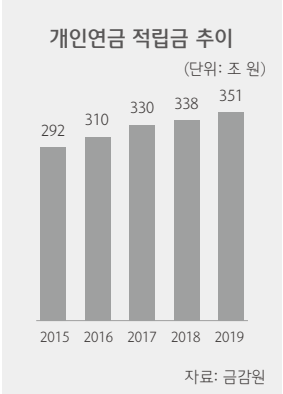
부자의 예상 연금 수령액은 월 314만원으로 은퇴 후 필요 생활비의 약 39% 수준이었으며, 대중부유층의 경우 연금 수령액은 월 184만원으로 은퇴 생활 자금의 약 44% 수준이었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금의 종류는 평균 2개였으며,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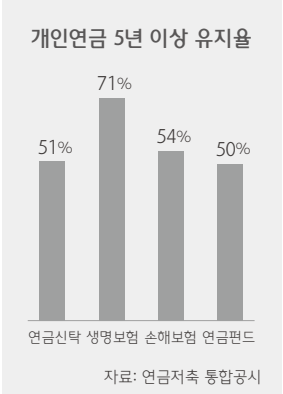
노후에도 상당한 금액의 평균 생활비를 예상하는 부자와 대중부유층들은 특히 개인연금 상품을 적극 활용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계에서는 뜻밖의 지출이나 소득 불안정 등의 이유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상당한 반면,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장기간 유지가 가능한 편으로, 개인연금의 보유 비율이 높았다.

부자 vs. 대중부유층의 연금



국내 일반 가계의 개인 연금 유지율





개인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54만원, 30년 이상 가입자는 127만원 수준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월 195만원)에 못 미친다. 이에 개인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지만, 장기간 불입해야하는 상품의 특성상 중도해지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19년 기준 개인연금 적립금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데 낮은 가입 유지율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소득불안정, 목돈 필요, 뜻밖의 지출 등으로 지속적인 납입과 장기간 자금 예치가 어려워, 연금저축 5년 이상 유지율은 50%대에 불과하다.

주: 특례 분할연금수급자를 제외하고 선정
자료: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 통계 20.9월 기준

부자들의 노후 준비: 연금 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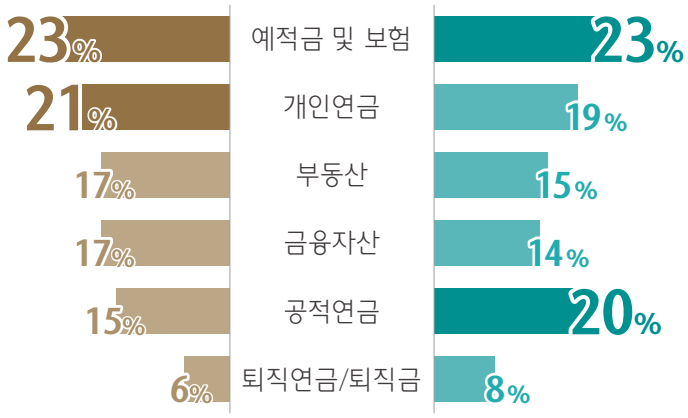
연금 외에도 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활용

앞서 부자와 대중부유층이 연금으로 충당하는 예상생활비의 비중이 39%와 44%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 나머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들은 연금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

부자들과 대중부유층은 공통적으로 예적금·보험, 개인연금을 주된 노후 생활비 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특히 부자들은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자산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다.

부자 vs. 대중부유층 노후 생활비 원천 (1,2,3순위 통합)

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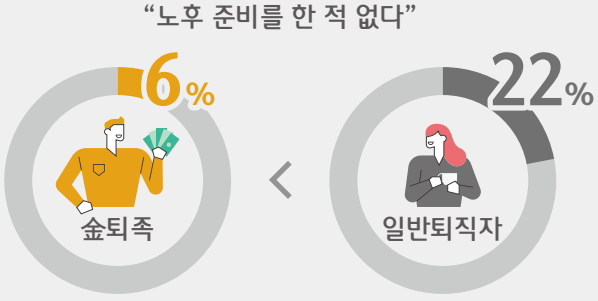


대중부유층

주: 금융자산 = 직·간접 투자 및 운용을 포함
주: 개인연금 =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보험
주: 공적연금 =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金퇴족 vs. 일반퇴직자 노후준비

국민연금 납부 외에 노후 준비를 위한 저축을 하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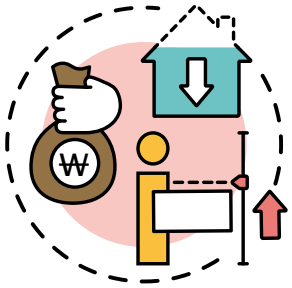
노후자금이 충분하다고 스스로 판단한 金퇴족의 경우에도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연금 이외에도 투자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 하고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연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

주: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 생애보고서 (50세 이상 퇴직자 1,000명) 2020

노후 자금, 부자의 노후 생활비 원천은 무엇일까?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은 감소, 연금 비중은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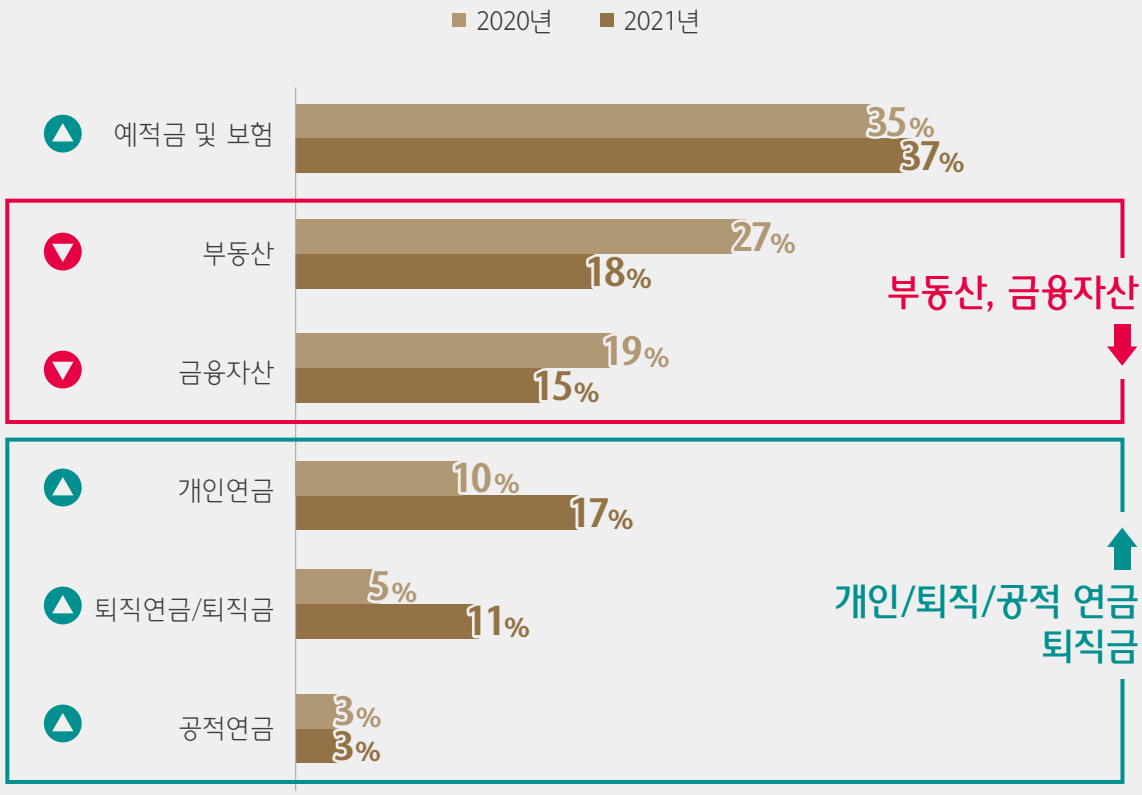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자들의 가장 큰 노후 생활비 원천은 예적금 및 보험이었으나, 올해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은 감소하고 연금 비중이 증가하였다. 최근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보유세 강화에 따라 노후 생활비 마련 수단으로 부동산 선호도가 감소하였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부동산과 금융자산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고령층의 주요 수입의 70~80%는 연금이다. 부자들도 세제혜택이 있는 개인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3층 연금 체계(개인연금, 퇴직연금, 공적연금)'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부자들의 노후 생활비 원천 1순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은 줄이고,
연금 비중을 높이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진행



07

부자와 대중부유층

디지털 자산관리와 투자정보

작년 한 해, 코로나와 함께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는 디지털이 아닐까.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투자 정보를 얻거나 자산관리에 있어 디지털 채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을까?

특히 '대중부유층'이라는 집단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이다.

디지털 채널이 보편화되면서, 기존에 PB(Private Banker)를 통해 제공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디지털 채널을 함께 활용'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거라 기대했던 그룹이 바로 대중부유층이다.

대중부유층은 디지털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으며, 부자와 얼마나 다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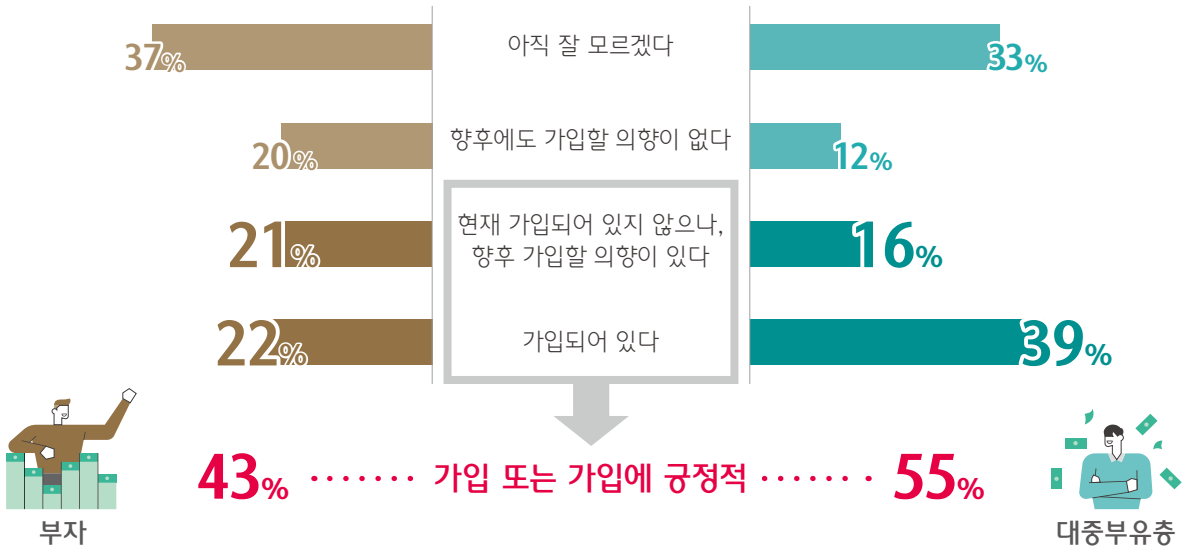
디지털 자산관리 ①

대중부유층의 절반 이상은 디지털 자산관리에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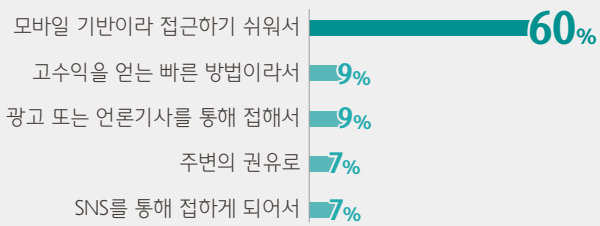
최근 주식 등 직접 투자 열풍으로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언택트 관리에도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부자와 대중부유층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여 자산배분, 자문, 상품 추천을 받는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대중부유층은 디지털 자산관리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의 39%가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다고 응답해 부자들보다 응답률이 높았으며, 가입되어 있는 서비스는 평균 2개 내외였다. 가입을 했거나 가입에 긍정적인 응답자는 '모바일 기반이라 접근하기 쉽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가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이유로는 스스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선호하거나, 서비스 이해의 어려움과 보안에 대한 우려 등이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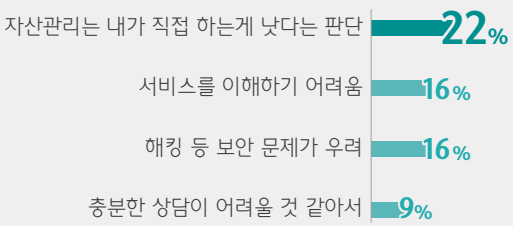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에 가입 또는 가입에 긍정적인 이유



주: 부자와 대중부유층 통합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가입에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이유



주: 부자와 대중부유층 통합

디지털 자산관리 ②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 화상상담 선호도는 높지 않은 편

코로나19 이후 오프라인 금융거래를 선호해왔던 50~60대의 모바일뱅킹 가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고령자들의 디지털 수용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자산관리'에서의 디지털 채널 활용도는 조금 달랐다. 아직은 30~40대가 훨씬 적극적인 편이었다.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금융자산의 규모보다는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였다.

언택트 트렌드 속에서도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인 경우, 화상서비스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자산관리 서비스를 화상상담으로 제공하는 것에 있어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43%로 나타나 선호도는 높지 않은 편이었다. 화상상담서비스의 선호 여부는 담당 PB와의 친밀도, 해당서비스 사용경험 유무 등에 좌우되며, 아직까지는 전문가와의 직접 대면 상담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 현황 및 태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가입되어 있다 (가입 서비스 평균 개수)	66% (2.6개)	47% (2.2개)	33% (1.9개)	16% (1.9개)	3% (1.0개)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향후 가입할 의향이 있다	8%	16%	20%	22%	16%	
아직 잘 모르겠다	19%	28%	34%	42%	49%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
향후에도 가입할 의향이 없다	7%	10%	14%	19%	32%	

주: 부자와 대중부유층 통합

화상상담을 통한 자산관리서비스 이용 의향

매우 의향이 있다 2.3%

의향이 있는 편이다 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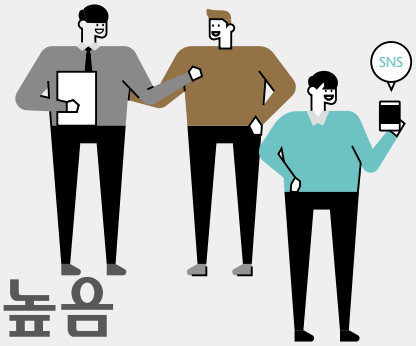
긍정 23%

부정 43%

전혀 의향이 없다 18.5%

의향이 없는 편이다 24.2%

※ 화상상담서비스는 영업점 방문 없이 손님의 스마트폰을 통해 영업점 직원 및 PB의 자산관리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
주: 응답률은 부자와 대중부유층 통합



투자 정보는 어디서 얻는가? ①

부자들은 금융회사 직원, 대중부유층은 디지털 채널 활용도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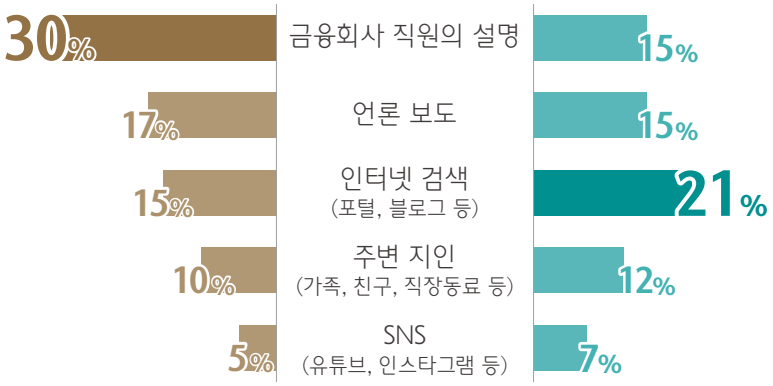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에서 금융이해도와 미래 재정상태간의 상관관계를 6년간 추적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속적인 금융교육은 금융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재정상태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지닌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제대로 된 교육, 즉 정보와 지식의 습득 없이 투자 경험만으로 금융이해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부자들이 현재의 자산을 일구는 데에는 아마도 '정보와 지식의 꾸준한 습득'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 투자 정보를 얻을까?

대중부유층은 인터넷 검색, 금융회사 직원, 언론, 주변 지인, SNS 등 다양한 경로로 투자정보를 획득하고 있었으며, 일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부자들의 경우 '금융회사 직원'의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금융회사들과 거래하고 있어 접촉하는 직원이 다양하고, PB서비스를 통해 전문적이고 개인화된 상담을 받을 기회가 더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산관리와 관련된 투자정보 습득 경로 Top 5

부자

대중부유층



주: 1순위 응답 기준

투자정보 습득을 위한 디지털 채널 활용 (대중부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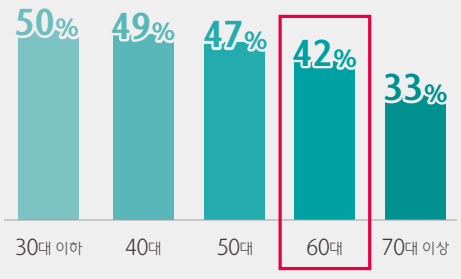
"대중부유층은 투자정보 습득을 위해 디지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채널(뱅킹앱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은 낮은 편"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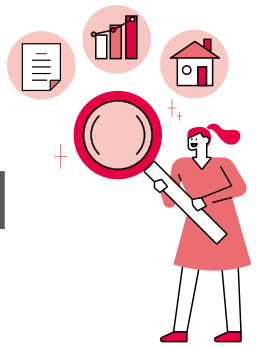
디지털 채널

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채널 **19%**
금융회사 外 운영하는 디지털 채널 **81%**

"60 대의 디지털 채널 활용도 상당히 높음"



주: 언론 보도의 경우 63% 를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간주 (언론진흥재단 2020 언론수용도조사보고서)
자료: 금융투자협회, 투자자의 금융이해도와 미래 재정상태간의 예측성 조사 보고, 2020.12



투자 정보는 어디서 얻는가? ②

부동산과 주식 모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

가장 주목받는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 부자들과 대중부유층은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까. 부자와 대중부유층 모두 공통적으로 언론기사, 주변 지인, 포털사이트, 인터넷커뮤니티 등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채널이었고,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중개소, 주식의 경우 자체적인 정보 수집 비중이 높았다.

다만 부자들은 '인적 정보 채널'(부동산 중개소, 금융회사 직원)비중이 대중부유층보다 높은 편이었다. 특히 부동산 고액자산가(부동산자산 50억 이상 보유)의 경우 부동산 중개소 응답 비중이 40%로 월등히 높았다. 또한 대중부유층은 부자들보다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도 낮은 편이고,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있었다.

부동산과 주식 정보 습득 채널

부동산

부자는 평균 2.2개
대중부유층은 평균 2.6개
채널을 활용

주식

부자는 평균 2.1개
대중부유층은 평균 2.5개
채널을 활용

주: 다중응답으로 합계는 100%이상

참고 문헌

보고서

-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0), '상속 증여 준비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 하나금융그룹 100년 행복연구센터(2020), '생애금융보고서: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홈페이지

- 통계청 : www.kostat.go.kr
- 한국은행 : www.bok.or.kr
- 한국부동산원 : www.kab.co.kr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금융감독원 : www.fss.or.kr/fss/kr
- 금융투자협회 : www.kofia.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www.fine.fss.or.kr
- 한국언론진흥재단 : www.kpf.or.kr

MEMO

2021 Korean Wealth Report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관리 트렌드

발행일 2021년 3월

집필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수영 연구위원	sylee11@hanafn.com	02)2002-2661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최희재 연구원	heejaechoi@hanafn.com	02)2002-2692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안성학 연구위원	shahn0330@hanafn.com	02)2002-2678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배도진 차장	dojinbae@hanafn.com	02)2002-1383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김지연 과장	jeeykim@hanafn.com	02)2002-1372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홈페이지 www.hanaif.re.kr

디자인 인포크리에이티브

인쇄처 (주)광문당

본 제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